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 교정

교정 공무원 문화교양지

2018.11

Vol. 510



**JUSTICE**

모든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삶!  
정의를 새기며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자.



11월, 가을의 끝자락이 넘어가는 계절입니다.  
겨울을 앞둔 당신의 마음에 한 가득 온기가  
채워지기를 월간 <교정>이 바라겠습니다.

## Contents

- 04 포토 이슈  
제14차 교정정책 자문단 회의 개최 외

### Colorful Think

- 06 Theme Column  
11월의 컬러, NAVY  
어둠과 빛을 조율하는 순간
- 08 Theme People  
범죄 이면의 보이지 않는 심리를 연구하다  
범죄심리학자 겸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 12 Theme Talk  
교정교화, 모든 장벽을 뛰어넘다  
천안교도소
- 16 Theme Advice  
교정공무원들에게 맞닿아 있는 '정의'

### Cheerful Life

- 18 교정은 행복을 신고  
가을의 끝자락에 오색 선율이 흐를 때  
진주교도소
- 24 아빠! 어디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한 어느 멋진 가을날  
대전교도소 교유 유희진 가족
- 28 어느 멋진 날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은 '완벽한 동료'  
인천구치소 의료과 직원들
- 32 패밀리 프로젝트  
가족, 책으로 서로를 읽다
- 34 습관의 건강학  
찬바람 불 때, '안구주의보'
- 36 히어로 코믹스  
드디어 밝혀진 교정맨의 정체
- 40 교정 인사이드  
철장 안으로 사람의 숨결을 붙여넣다

### Correction Story

- 42 교정 글마당  
공주교도소 보안과 교사 배지수
- 44 교정 포커스  
제73주년 교정의 날 :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교정인의 자부심이 꽃피운 날
- 48 공모전 수상작  
제1회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 50 교정 리포트  
교정조직 독립의 필요성과 과제(下)
- 56 지상강좌  
교정학
- 58 교정뉴스  
본부 소식 & 일선기관 소식
- 66 교정 스타그램  
정의를 담은 사진 열전
- 68 BOOK MARK  
우리에게 '정의'를 일깨워주는 책들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교정 2018년 11월호 (통권 510호) 62권 11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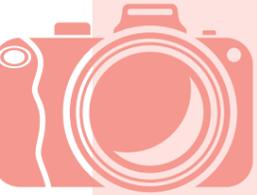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교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카카오톡 아이디  
mojcor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Photo Issue

10월, 교정본부에는 교정의 '내일'을 준비하는 특별한 활동들을 펼쳤다. 교정의 의미를 창출하고, 교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한 현장들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자.



## 제14차 교정정책 자문단 회의 개최

제14차 교정정책 자문단 회의가 10월 17일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징역 3년 미만 단기 수용자를 위한 개방 교도소 확대 방안'을 주제로 실시된 이번 회의에는 최강주 교정본부장과 유승만 교정정책단장 등 내부위원 4명, 히태훈 위원장 등 외부위원 10명이 참여하였다. 교정 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 내실 있는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할 계획이다.



## 문화산업 종사자, 교정공무원 체험 실시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교정공무원 체험이 지난 10월 실시되었다.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 등 문화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정공무원 체험은 교정을 바로 알리고 교정이 중심이 되는 문화콘텐츠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CJ E&M 오픈 작가 김지훈 씨 외 1인은 10월 25일부터 3일간 서울남부구치소를, CJ E&M 오픈 작가 김민경 씨 외 1인은 같은 기간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하여 총무과, 보안과, 사회복귀과, 분류심사과 등 부서별 업무 및 아간 업무에 대한 체험을 실시하였다.



## 어둠과 빛을 조율하는 순간

고요한 어둠 속에 있는 듯하나, 어둠은 아니다. 바다의 심연에 머무를 듯하나, 바다에 있지 않다. 모든 지점에서 살짝 비켜난 네이비는 자기 색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법이 없다.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오래 가까이 들여다보아야 하는 네이비. 가장 묵직한 무게감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네이비는 어떤 흐름이나 변화 속에서도 빛을 잃어버리지 않을 컬러다.

# NAVY

11월의 컬러

### 차분하게 내려앉아 무겁게 자리하다

블랙을 제외하고 가장 어두운 컬러인 네이비는 블루와 퍼플이 섞여서 만들어진다. 오묘하고 신비로운 퍼플과 생동감을 일으키는 블루의 교집합인 네이비는 언뜻 어둠을 상징하는 블랙처럼 보이거나 분명히 다른 빛을 전달한다. 깊은 계곡의 물이 땅과 만나는 지점처럼, 첩첩산중에 해가 떠오르는 순간처럼 '빛을 찾아가는 어둠'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어둠과는 구별되는 네이비는 어디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무게감이 있다. 또한 차분하고 고요하며 모든 컬러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포용력도 내포한다.

그 덕분일 것이다. 네이비는 무언가의 중심이 되는 컬러로 우리 주변에 많이 쓰인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다양한 나라의 국기 바탕색으로 적용된 이유는 네이비가 가진 무게감, 신뢰감 때문이다. 우리가 네이비 컬러의 정장을 즐겨 입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정중함, 신뢰, 예의, 용기. 이 모든 이미지를 함축하는 컬러로 네이비가 기능하고 있어서다.

### 저녁 하늘처럼 새겨지는 네이비

낮이 건너간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하늘은 숨겨져 있던 존재들을 비로소 드러나게 한다. 영롱하게 박힌 별들이, 차갑게 떠오른 달이 자기 빛을 뽐어내도록 배경이 되어준다. 칠혹 같은 어둠이 하늘을 뒤덮기 전 네이비는 온화하게 세상을 감싸는 것이다.

역동적인 낮과 잠들어 있는 새벽녘, 그사이에 머무르는 저녁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다. 내가 오늘 걸었던 길이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 반추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다.

우리는 정의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치라고 여긴다. 그러나 정의의 본뜻을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덕목이 정의라는 사실을 쉬이 깨닫게 된다.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를 뜻하는 정의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가치다. 사람을 구하는 영웅이나 사회의 부조리를 바꾸어 놓는 의인만이 정의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에 목소리를 내고, 비뚤어짐 없이 내가 하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빛과 어둠을 조율하는 네이비처럼 우리는 그 가운데의 지점에서 올바른 방향을 묵도하면 된다.

### 깨알 지식

#### 'about NAVY'

네이비를 발명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다. 1835년 10월 31일 독일에서 태어난 유기 합성 화학 전문가이자 교수인 아돌프 폰 바이어가 그 주인공. 그는 한해살이풀인 '쪽'이라는 식물에서 나는 네이비를 연구해 1880년 합성에 성공했다. 그때까지는 남색의 정확한 화학구조를 밝히지 못했는데, 연구를 계속해 1883년 네이비의 화학구조도 밝혀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05년에는 노벨화학상까지 받았다.

# 이수정

범죄심리학자 겸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교수는 범죄심리학자다. 우리에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여준 냉철한 분석으로 익숙한 인물이기도 하다. '평범한 사람들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범죄 이면의 보이지 않는 심리를 연구해 온 사람.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를 만났다.

## 범죄 이면의 보이지 않는 심리를 연구하다



### 그것이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이수정 교수를 찾는다

인터뷰는 수시로 중단됐다. 설 새 없이 울리는 이수정 교수의 핸드폰. 최근 발생한 범죄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언론 혹은 관련 기관의 요청이 이어졌고, 이 교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전달했다. 범인의 심리에 대한 냉철한 분석 이면에 존재하는 피해자에 대한 깊은 공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절실함. 이수정 교수가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수시로 인터뷰를 멈춰야 했던 이유다. 이수정 교수는 범죄심리학자다. 예상 가능한 패턴을 벗어나는 범죄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형사, 사법 절차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대검찰청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 경찰청 쇄신위원회 위원 등 그녀의 이름 앞에 붙는 다양한 수식어들. 그 중에서도 대중들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은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냉철하게 범죄와 범인의 심리를 분석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힌 사건, 수사의 길을 잃고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린 범죄에 대한 냉철하고 예리한 분석. 이수정 교수는 가려진 진실과 범인의 심리에 대한 자문을 통해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해왔다. 20년 가까이 지속해 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자문 활동은 그녀에게 대중적인

유명세와 함께, 연구자로서의 입지를 안겨주었다. 천생 연구자인 그녀에게 카메라는 여전히 편치 않은 존재지만, 연구자로서의 영역을 넓혀준 고마운 프로그램이기에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동행은 당분간 계속 될 듯하다. “유명세를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로 인해 범죄심리학자 이수정이라는 이름에 신뢰가 더해졌고, 범죄의 예방과 사회적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죠.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문하는 과정 자체가 제 연구에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청소년 랩퍼들이 나오는 EBS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어요. 방송이나 언론에 나가는 것은 여전히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하려고요. 그래야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날 테니까요.”

### 범죄 이면의 심리를 찾아, 범죄심리학자의 길을 걷다

이수정 교수가 범죄심리학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1999년 경기대학교에 부임하면서부터다. 교양학부 심리학과에 자리가 나서 지원을 했는데, 교정학과 연구 과제를 위해 채용이 된 것. 범죄자 분류 심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연구 과제였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심리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 그렇게 ‘우연’ 같은 ‘운명’을 만나 범죄심리학자의 길을 걷게 됐다. “범죄자의 죄질이나 심리적 특성 등에 따른 구형 기준, 어느 등급을 가진 교도소에 배정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를 적용할 기준이 없었어요. 범죄자 분류 심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연구 과제에 제가 참여하게 된 이유죠.” 미국에서 심리측정에 대해 공부했으니, 수용자들의 자료를 분류해 유형화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다만 이수정 교수는 ‘한 사람 당 한 줄 내외에 불가한 자료만으로 범죄자 분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대상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서류 한 줄로 심리를 분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어진 연구 과제가 범죄자의 수용, 더 나아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에 결론은 하나였다. ‘직접 만나야 한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교도관이나 변호사가 아닌 민간 연구자, 그것도 여자가 교도소에 들어가 수용자를 만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며 요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거절'이었고요. 물론 보안상의 이유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겠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궁금해요. 연구를 맡겨놓고 대상자를 만나겠다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지...(웃음)"

범죄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없이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다.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다.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위치가 되겠다"는 오기도 생겼고, <그것이 알고 싶다> 등 방송 출연으로 그 오기가 실현됐다.

"지금도 법무부에 계신 연세 많은 분들은 '말씀 많이 부렸던 여자'로 저를 기억하실 거예요.(웃음) 그래도 덕분에 이제는 법무부 용역이나 연구를 위해 수용자의 동의하에 교도소에서 만나는 것이 가능해졌죠. 수용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판결문에 기록된 범행의 동기 외에도 성장 과정과 환경, 심리적 요인 등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체감했어요.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간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재범을 막는 것도,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니까요."

### 1세대 프로파일러로서 범죄 현장에 참여하다

이수정 교수의 연구가 범죄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시작한 건 2004년경부터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profiler) 역할을 도맡으며 실제 판결 전 단계에 투입된 것. 유영철, 전남규 등 소위 '사이코패스'로 불리는 범죄자의 등장은 국내에 프로파일링(profiling) 수사 기법을 도입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그 전까지 범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저지른다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사이코패스의 범죄 심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범죄심리학에 있어 더 큰 변화를 가져온 건 2008년 조두순 사건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유영철 사건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운이 나빠서 범죄의 대상이 됐다'고 보는 시선이 다수였고요. 그러다 조두순 사건이 일어나면서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죠."

범죄가 단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형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커져갔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국민들의 관심은 '범죄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벌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수정 교수의 주장에도 힘을 실어주었다.

"실제로 분류심사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일곱 번이나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형량이 3년 적용됐어요. 초범과 마찬가지로, 기중형량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죄질도 재범 확률도 다른데 말이죠.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고, 2008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모아졌어요."

이러한 움직임은 형사재판전문심리위원 제도, 전자발찌 도입으로 이어졌다. 20년간 고집스레 지켜온 이수정 교수의 신념과 사회적 관심이 이끌어낸 가치 있는 변화였다.



“사람만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정공무원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 사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수정 교수는 여전히 교단에서 범죄심리학을 가르치고 전공 분야에 대한 연구도 지속하고 있다. 프로파일러로서 강력 범죄 해결 및 예방에 동참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도 범죄자마다 차이가 있어요. 교정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 빠르게 교화가 이루어지는 수용자도 있고, 반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형이 만료되는 수용자도 있죠. 주어진 형량이 다했다고 해서 그대로 사회로 돌려보내도 되는 걸까요? 그렇기에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제도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수정 교수는 형량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형의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죄질과 범행 동기, 재범 확률 등 범죄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이 집행돼야 한다는 것. 이 교수가 '전자발찌와 함께 보호관찰을 병과할 것', '출소 이후의 감독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이유다.

"획일적인 엄벌주의는 당연히 실패합니다. 관대한 선도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수용자의 죄질 및 특성에 따른 교정과 교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교정 단계에서 가석방 시기나 출소 후의 관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를 교도관 개인의 역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마련되어야 하고요."

이수정 교수는 "재범을 막아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정공무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수용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 있더라도 이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정공무원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단련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최고의 범죄심리학자이자 1세대 프로파일러로 범죄 해결과 예방에 앞장서온 이수정 교수. 그녀는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거창한 목표도 없다"고 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이것 하나만은 확신할 수 있다고 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범죄심리 연구자로 살아가겠죠. 그 길 위에서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입 닫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좀 불편해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꼭 해야 할 말이라면 얘기할 겁니다. 그 목소리가 범죄의 예방과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면 더할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겠죠."

# 교정교화, 모든 장벽을 뛰어넘다

## 천안교도소

외국인 수용자를 상대하려면 더 큰 사명감이 마음에 박혀야 한다. 수용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수용자가 살아온 그 나라의 문화까지 이해해야 하고, 나 자신이 '대한민국'의 교정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 그 사명감으로 일하는 천안교도소 직원들은 '교정교화에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교정공무원들이다.



### 언어는 달라도 진심은 전해진다

지난 9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특별히 방문하고 싶다고 의견을 피력한 교도소가 있었다. 빠듯한 일정을 보내느라 바빴을 텐데도 해리스 대사는 자신의 바람대로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함께 10월 1일 해당 교도소를 찾았다. 수용동과 작업장 등의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미국인 수용자를 면담하며 소의 면면을 눈에 담았던 해리스 대사. 이후 그가 한국 정부에 전한 말은 “수용된 미국인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위해 차별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였다.

해리스 대사가 방문한 기관은 바로 오늘 소개할 천안교도소다. 그가 천안교도소에서 좋은 인상을 받고 정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소가 그만큼 안정적으로 수용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2010년 첫 외국인 인전담시설로 지정된 천안교도소는 십 여 년 가까이 외국인 수용자를 교정교화하기 위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다채로운 노력을 다하는 곳이다.

오늘 모인 천안교도소 직원들 역시 “일의 강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만큼 더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담 교감은 ‘민간 외교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직원들이 쏟는 진심과 사명감의 깊이를 설명했다. “수용자들이 출소한 후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거나 이곳 한국에서 삶을 이어나갈 텐데요. 그때 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고 갈 수 있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간 외교관’이라는 생각으로 늘 마음을 열고 수용자에 다가가려고 하고 있죠.”

직원들이 쏟는 노력은 언어 공부에서 시작된다. 영어는 물론, 일본어와 중국어 공부에 매진하는 것. 여기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책을 읽는 노력도 더해진다.

그리고 진심이 깔린다. 하루가 시작되어 수용자에게 “헬로”라는 인사말을 전할 때 천안교도소 직원들은 외국인 수용자를 다른 나라 사람으로 구별하지 않으려는 반듯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 한국의 문화가 깃든 교정교화 프로그램

천안교도소는 외국인 수용자를 배려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이다.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 이들도 명쾌한 ‘굿모닝 코리아’ 인문강좌가 대표적이다. 한글교육, 한국문화 습득, 서예 배우기, 태권도 익히기와 같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센터(Multi-cultural Center)’도 눈여겨볼 만 하다. 전통문화체험실과 도서실, 시청각실, 특별활동실 등 한국 문화를 배우고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천안교도소의 다양한 시설, 직원들의 세심한 노력으로 수용자들 역시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 이에 대해 정희민 교위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외국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한 달마다 한 번씩 체크하는데, 수용자의 80%가 만족을 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 출신 수용자들이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밖에서는 임금체납이나 차별대우 등 수모를 당하고 상처를 겪는데, 되레 이곳에서는 차별 없이 자신들을 대하는 모습에 큰 위로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출소 후 고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나중에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고 얘기하는 수용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 동료의 짐을 덜어줄 우리라는 존재

천안교도소에 외국인 수용자들만 수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미결 수용자, 피보호감호자 등 수용의 구분도 다양하다.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지만 그럼에도 누구 하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기 일처럼 나서는 덕분에 그 업무의 부담을 나눠 가진다.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도 직원들이 서로 신경 쓰며 동료애를 쌓아가고 있다고, 김원정 교감이 이야기를 덧붙였다.

“특히 저희 소에는 경조사를 챙기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어요. 최근 직원 가족의 장례식이 있던 날에는 버스 몇 대를 대절해 함께 장소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회식을 갖는 횟수가 줄어들어 직원들이 함께하는 기회 역시 적어지긴 했는데요. 최근 트렌드인 워라벨을 따른다는 점에서 꼭 나쁜 흐름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웃음)”

오늘 모인 직원들의 얼굴은 어두운 기색 없이 밝았지만, 실제 직원들의 근무 여건은 녹록지 못한 상황이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 및 퇴직 등의 안타까운 사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에 따라 천안교도소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인 마음나래를 활성화시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윤번휴무보장 TF팀을 구성하여 출정, 관외소환 등 야근자들의 업무를 사무직에서 조금이나마 분담하는 것도 노력의 일환이다.

### 기분을 잊지 않을 천안교도소의 내일

천안교도소에 윤길현 소장이 부임하고 나서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한 부분은 ‘기본’이다. 소장은 “수용자 도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라”라는 말을 직원들에게 전했다. 너무나 당연해서 잊기 쉬운 교정공무원의 첫 번째 본분을 이곳 천안교도소 직원들은 제일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다.

“지금은 수용자의 도주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교정에 몸담은 소장님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임을 누구보다 중요히 인지하는 만큼 도주 사고 예방을 특별히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죠.”

다양한 외국인 수용자를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교정공무원의 기본을 잊지 않으려는 천안교도소 직원들. 수용자를 다루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 일인데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온 수용자를 관리하는 일은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교정공무원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수용자에게 다가서고, 동료들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우리나라 교정의 품격을 한껏 높이는 중이었다.

## Theme Talk



교감 윤담



교감 김원정



교위 정희민

### 내가 생각하는 정의의 의미

모든 법과 원칙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숨 쉬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교도소가 되어야 하고요. 저 역시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정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정의 아닐까요. 즉 다수의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칙이 곧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옳바르다고 믿는 행위가 정의 아닐까요. 법적인 측면에서 만인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정의가 되겠지만, 자신의 가치 판단이 이뤄질 때 스스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어요.



교도 황정아



교도 최신



교도 김우겸

정의는 지켜야 할 원칙이죠. 그런데 그 바탕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토대 위에 세워진 정의야말로 '올바른' 정의 아닐까요.

교정공무원에 있어 '정의'를 국한한다면 수용자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출소 후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곧 교정공무원의 정의이자 신념인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좋겠다'는 통념이 있잖아요. 그 통념 안에서 내가 스스로 어떤 가치를 세운 것, 내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 천안의 가 볼 만한 곳

### 미나릿길 벽화마을

발을 내 딛는 곳, 서 있는 모든 곳이 근사한 배경이 된다. 미로처럼 뿔어 있는 미나릿길 벽화마을 얘기다. 담벼락과 골목 모퉁이는 시간이 멈춘 듯 그 옛날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어두웠던 회색골목이 하얀 도화지벽으로 바뀌면서 드러나는 형형색색의 이야기들이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는 곳이다. 지금은 끊어질 듯 이어진 이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전하는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한껏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사진제공 : 천안시



### 천안 성불사

고려 초기에 세워진 사찰로서 백학이 성불사 암벽에 불상을 만들려다 완성하지 못하고 날아가자 이를 본 사람들이 성불사로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찰의 규모는 여느 사찰에 비해 작은 편에 속하지만 그만큼 조용하고 포근한 맛이 있다. 특히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의 매력이 다채로워서 언제 찾아도 그 자체의 맛을 만끽할 수 있다. 저녁이 되면 사찰에도 내려앉은 듯한 아름다운 노을의 기운을 감상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교정공무원들은 '정의'를 행하고 전파한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관리하고, 교육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정의를 실현하는 교정공무원들은 그만큼 당연히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한 사람들이 아닐까.

## 교정공무원들에게 맞닿아 있는 '정의'

### 사람, 정의를 새기고 향하다

정의(正義)의 정의(定義)는 명확하지 않다. 오랜 역사 속에서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곤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로마 제국의 법학자 울피아누스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라고 정의했다. 현대에 들어서 존 롤스는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정의는 하나로 설명될 순 없지만, 이들의 말을 통해 평등, 합당한 보상, 공정성 등의 가치가 정의를 위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현재에 이르러 우리가 정의한 정의는 조금 단순해졌다.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곧은 것'이다. 다만 '바르디는 것'에 대한 의미는 늘 모호한 구석이 있기에 만인이 인정하는 법, 원칙이 우선 포함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 법과 원칙을 지키며 대부분 바른 길을 가려고 하나 그러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한 인물들이 뉴스를 장식하기에 우리는 늘 정의가 부재되어 있다고 느끼며 좌절하고 정의를 갈망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분명 적지 않다. 그 가치가 '직업'으로서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일지라도 말이다.



### 교정공무원이 도달한 정의의 수준

'정의'라는 가치와 항상 맞닿아 있으며, 이를 늘 우선시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직업들이 있다. 예를 들면 곤란한 상황에 놓인 시민들 곁에서 도움을 주는 경찰, 사람이 저지른 죄의 크기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판사들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정의'와 가까이 있는 교정공무원들을 빼놓을 수 없다.

바르지 못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올바른 길로 다시 향할 수 있도록 이들을 관리하는 교정공무원들은 '정의' 그 자체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앞서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곧은 것을 곧 정의라고 살펴봤는데,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그 '정의'를 실현하게 된다. 수용자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일을 전적으로 도맡음으로써 수용자가 '자유'의 박탈이란 죄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교정공무원은 '정의'의 수준을 다시 한 단계 끌어올린다. 바로 '교정'을 통해서다.

말 그대로 '바로 잡는다'는 뜻의 '교정'은 '합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정의의 의미를 넘어서다.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른 것으로 안내하고, 변화시키고, 그 일에 모든 헌신을 쏟기에 진정한 '정의'에 도달한다. 어쩌면 교정공무원은 역사적인 철학자들이 정의했던 '정의'에 미처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방향'성과 '이상'까지 아로새기는 인물들이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제73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보낸 영상축사에서 "73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정을 시작했다"며 "범죄인 격리라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 수용자를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교정공무원을 격려했다.

그의 말처럼 쉽지가 않아져 온 역사 속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교정공무원들.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곳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기 위한' 정의가 아닌, '묵묵히 행하는' 정의를 실현해왔다. 앞으로도 교정공무원들은 그 정의를 품어야 할 것이며, 또 품을 것이다.

# JUSTICE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기 위한' 정의가 아닌,  
'묵묵히 행하는' 정의를 실현해왔다.



## 가을의 끝자락에 오색 선율이 흐를 때

진주교도소

음악은 사람들을 연결하게 한다. 저마다 다른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에게 같은 정서를 전해주는 덕분이다. 그렇다면 음악을 함께 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며 서로가 가진 주파수를 맞추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진주교도소에는 그렇게 음악으로 서로 함께 스며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 주인공들이 전하는 음악의 색채를 감상하기 위해, 여기에 또 다른 음악의 선율을 더하기 위해 '교정은 행복을 신고'팀이 진주교도소로 향했다.



### 이 정도면 '잘난' 교도소 맞죠?

진주교도소는 자랑거리가 많다. 정신질환 수용자, 결핵 수용자를 전담하고 있는 이곳 교도소는 수용자들에 대한 의로 처우가 세심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최근 3년 동안 인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번갈아 수상할 만큼 수용자의 인권을 위해 노력을 쏟고 있는 점도 내세울 만한 행보다. 기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에 이바지하며 시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또 어떤가. 진주교도소 황의호 소장이 "진주교도소 직원들은 진주 식당 어디를 가더라도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고 자신할 정도니 그냥 의심 없이 믿으면 된다.(!)

그리고 음악 동호회인 선율여행. 진주교도소를 얘기할 때 이 동호회를 빼놓을 수 없다. 이처럼 활동 범위를 끊임없이 넓혀가는 동호회를 또 찾을 수 있을까 싶은 정도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정기연주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제1회 범무가족 행복나눔음악회'도 개최하였다. 진주교도소의 마스코트로서 이젠 소를 넘어 지역에 따뜻한 음악 선율을 선물하는 '선율여행'이다. 선율여행이 전하는 음악을 선물 받고, 또한 직원들에게 또 다른 빛깔의 선율을 선사하기 위해 '교정은 행복을 신고'팀은 기대감을 가득 안고 진주로 향하는 여정에 몸을 실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현장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을의 단풍을 담은 선율이 퍼지다

진주교도소에 도착하여 소장의 따뜻한 환대를 받은 '교정은 행복을 신고 탐은 더 지체할 것 없이 곧바로 리허설이 준비되는 진주교도소 어울마당을 찾았다. 기타와 드럼이 설치된 무대 위에서 선율여행 회원들이 수차례 목소리를 가다듬고 연주를 맞추며 철저한 준비 시간을 가졌다. 오늘 연주회를 책임질 또 다른 주인공 우윤경밴드 역시 음향을 체크하며 리허설에 몰입했다.

어느덧 행사의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 직원들. 곧 준비된 의자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고, 몇몇 직원들은 자리를 찾아 나서야 할 정도가 됐다. 그야말로 완벽한 흥행이 예감되는 순간. 교정기획과 윤종웅 교위가 "올해의 마지막 '교정은 행복을 신고' 행사를 진주교도소와 함께해서 기쁘다"는 인사말로 이벤트의 시작을 알렸다. 황의호 소장의 격려 인사는 곧바로 이어졌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짧았던 가을을 보내고 긴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고 운을 띄운 황의호 소장은 준비팀과 공연팀들이 박수를 받도록 직원들에게 요청한 후 "이벤트를 통해 우리를 가슴 속에 단풍이 붉게 물들기를 바랍니다"는 축축한 인사말을 전하며 음악회의 닷을 올렸다.

1부 무대는 선율여행이 나섰다. 동호회를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인물은 주형진 교위.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직원분들의 힘찬 박수를 받도록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자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화답했다.

드디어 펼쳐진 공연의 1막. 배홍난 교감을 필두로 한 통기타 합주팀이 무대를 선보였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하는 이에게', '행복의 나라로'가 잔잔한 통기타 선율로 흐르며 직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다. 여기에 가을의 끝자락에 어울리는 감미로운 목소리가 더해지니 직원들은 지그시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살짝 좌우로 흔들며 감흥에 취하기 바쁜 모습이다.

이어 펼쳐진 공연은 통기타 솔로 무대. "사실 오늘 동남아 순회 공연이 있는 날인데, 전화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는 농을 던지며 직원들을 깔깔 웃게 한 김진완 교위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기타와 함께 완벽히 소화했다. 가을의 정취가 내려앉는 듯 공연장에는 김진완 교위의 목소리와 기타 선율이 차분하게 깔렸다. 그리고 박자에 맞춰 가볍게 손바닥을 치는 직원들이 함께 화음을 빚어가고 있었다.

선율여행의 마지막 무대는 주형진 교위, 심현진 교사가 보컬로 나선 밴드팀이 맡았다. 바로 조금 전까지 차분한 선율에 마음이 젖어 드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어깨가 들썩이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기분이었다. '젊은 그대', '나 어떡해' 등을 선보이며 직원들의 열렬한 환호를 이끌어낸 것. 청춘으로 돌아간 듯 열정과 카리스마로 무대를 가득 채운 주형진 교위, 심현진 교사 이하 밴드팀은 선율여행이 어떻게 진주를 대표하는 동호회로 자리 잡게 됐는지 단번에 증명해주었다.

### 팝부터 트로트까지, 풍성한 음악 잔치

공연 2막을 연 주인공은 우윤경밴드다. 가요는 물론 팝송과 트로트까지 넘나들며 그야말로 장르불문 다채로운 노래를 소화하는 어쿠스틱 밴드라면 조금 설명이 될지 모르겠다. 보컬 우윤경 씨와 기타리스트 임진강 씨가 무대 세팅을 준비하자 이미 객석 뒤쪽에서는 남자 직원들의 '와하!'하는 탄성이 터지기 시작했다. 환대 속에 우윤경 씨가 첫 인사말을 전했다.



"KTX를 타고 이곳 진주까지 내려왔는데요. 나름 긴 여정이었지만 이곳에서 교정공무원 여러분들을 뵈니 피로감이 달아나는 듯 벌써 힘이 납니다. 오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싱글싱글 웃는 얼굴과 양증맞은 말투로 인사를 전하니 직원들의 표정이 답답할 리 없다. 직원들의 얼굴엔 어떤 연주라도 감사히 전해 들겠다는 듯 흐뭇한 미소가 걸렸다.

첫 번째 곡은 발랄한 박자감이 인상적인 Natalie Cole의 'LOVE'다. 우윤경 씨가 직원들을 향해 호응을 유도했다. "제가 L을 부를 때 L이라고 따라 불러주시고, O를 부를 때 O라고 따라 불러주세요. L.O.V.E 아셨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동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네!" 앓된 외모와는 달리 성숙한 목소리를 지닌 우윤경 씨가 원곡보다 더 섬세하고 깊이 있게 'LOVE'를 소화하니 직원들은 금세 무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약속대로 무대 중간마다 'LOVE' 합성도 크게 울렸다.

첫 무대를 마친 우윤경 씨는 그제야 긴장감을 내려놓고 멘트를 이어갔다. "딱딱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는데 호응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다음 노래로 자우림의 '헤이헤이헤이'를 선곡한 우윤경 씨는 이번에도 '헤이헤이헤이' 구절을 따라 불러 달라는 부탁을 전하면서 노래를 시작했다. 원곡 가수 김윤아 못지않은 청량감 넘치는 목소리가 공연장을 메우자 직원들이 부르는 '헤이헤이헤이' 구절도 덩달아 커졌다.

박진영의 '난 여자가 있는데'를 개사한 '난 남자가 있는데'도 인상적인 무대였다. 공연이 끝나고 '신성한 장소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어 가슴이 아프다'고 우윤경 씨가 소감을 남겼고 객석에선 한바탕 웃음이 터져 나왔다.

공연의 분위기는 절정을 향하며 무르익어갔다. "이번에 부를 곡은 '스웨이'인데요, 이번 무대가 끝나고 앵콜을 외치시지 않으면, 저는 집에 돌아가고 한 곡을 못 부르게 되고..." 우윤경 씨가 투정하듯 중얼거리며 앵콜을 당부하니 직원들이 어찌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노래가 끝나자마자 직원들은 일제히 함성과 함께 이 단어를 열창했다. "앵콜, 앵콜!" 우윤경 씨가 마지막으로 선보인 공연은 '당돌한 여자'다. 간드러지는 가성으로 트로트까지 완벽하게 열창하니 직원들은 환하게 웃으며 절로 어깨를 흔들었다. 풍성하게 빛이진 음악 연주회가 아쉬움 속에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선율여행과 우윤경밴드가 꾸린 오늘 음악 연주회는 다채로운 색의 음악이 함께 놓일 때 음악이 주는 여운과 감동은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는지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 즐거움과 행복, 따뜻함과 정겨움 속에 '교정은 행복을 신고'는 그렇게 '올해의 마지막'이라는 닷을 내렸다.

우리에게 복잡 미묘한 감정을 제공하는 '마지막'이라는 시간. 때로 후련하기도 하지만 아쉽고 먹먹하기도 하다. 어찌됐든 가볍지 않은 여운도 맴돈다. 그 모든 감정들을 안고 마무리된 2018년 '교정은 행복을 신고'는 이제 새롭게 맞게 될 2019년을 향해 다시 '처음'을 새겨갈 계획이다.



# 교정의 행복을 Happy corrections



**교위 강병철**

우리 직원들이 연주회를 통해 모처럼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선율여행과 우윤경밴드 모두 수고 많으셨고 저도 동료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교도소**

선율여행과 우윤경밴드가 빛어낸 다채로운 무대, 공연팀과 관람 직원들의 소감을 들어보자.

## 선율여행



**교위 심현진**

우리 직원들은 늘 어려움을 겪는데 오늘 연주회를 통해 모처럼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선율여행과 우윤경밴드 모두 수고 많으셨고 저도 동료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위 김진완**

교정공무원은 수용자를 상대하기에 감정적인 노동을 해야 하는 직업인데요 그 피로감이 음악으로 많이 달아난 것 같습니다. 기획해주신 교정기획과분들께 특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교사 하진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며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게 항상 즐거워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율여행이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율여행 파이팅!



**우윤경밴드**

장소가 장소인 만큼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웬걸 너무 뜨겁게 호응해주셔서 되레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애쓰시는 교정공무원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교감 강숙희**

열심히 연습한 선율여행의 무대가 깊어가는 가을 분위기에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우윤경밴드의 다채로운 공연도 즐거웠고요, 이번 음악회는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요.



**교위 장영진**

지방에서는 이런 좋은 공연을 접하기 쉽지 않아요. 서울에서 밴드분들이 직접 내려와 주시고 무대를 꾸며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위 성태헌**

오늘 이벤트를 통해 우리 직원들이 크게 힐링할 수 있었습니다. 화합의 장을 마련한 뜻깊은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연이는 호기심 많은 7살 꼬마 숙녀다. 해보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궁금한 것도 많은 소연이의 호기심을 넘치도록 채워주는 사람은 엄마와 아빠. 다양한 경험을 즐기며 더 넓은 세상을 배워가길 바라고 있다. 오늘은 소연이가 좋아하는 치즈를 직접 만들어 보기 위해 '세종 품의 목장'을 찾았다. 싱그러운 가을바람과 직접 만들어 더 맛있는 치즈,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했던 어느 멋진 가을날.

## '세종 품의 목장 치즈' 체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한 어느 멋진 가을날

대전교도소 교위 유동진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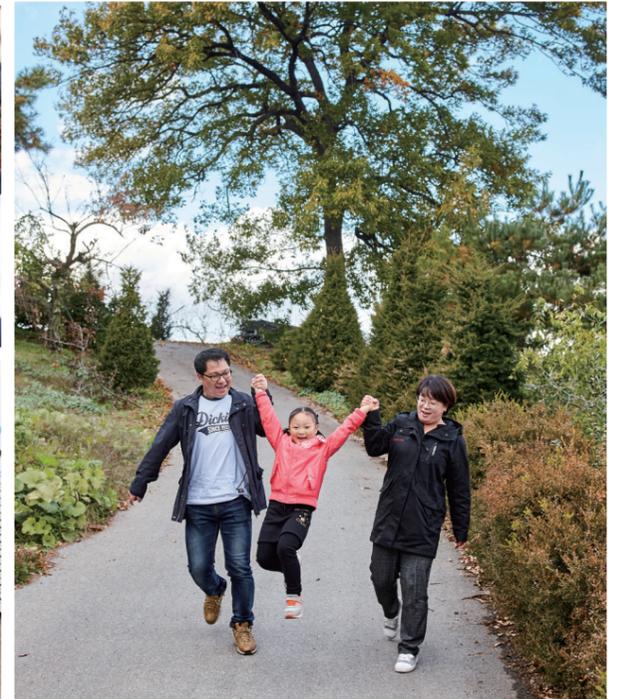
### 우리 아빠는 슈퍼맨!

“아빠가 없었으니까.” 울여름 유치원에서 갯벌 체험을 갔다가 울었다는 소연이. 왜 울었냐는 질문에 소연이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놓은 대답이다. “갯벌에 엄청 큰 지렁이가 있었는데, 지렁이를 물리 쳐줄 아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소연이에게 아빠는 슈퍼맨이다. 직장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멋진 교도관이고, 집에서는 엄마와 소연이의 행복을 지켜주는 멋진 아빠다. 놀이터에 갈 때도 아빠만 옆에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다. 높은 미끄럼틀에서 처음으로 혼자 내려온 것도 밑에서 아빠가 환하게 웃고 있어서다.

“소연이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꿈도 많은 7살이에요. 아이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함께하려고 합니다. 소연이가 아직

어려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유동진 교위가 시간이 날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유다.

유동진 교위는 “소연이에게 늘 좋은 아빠일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아내 덕분”이라고 했다. 남편이 퇴근하면 낮 동안 소연이와 있었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한다는 아내 김경화 씨.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소연이 눈높이에서 설명해주는 것도 엄마의 몫이다. “남편이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주말에도 집에 없을 때가 있어요. 소연이가 ‘우리 아빠는 왜 토요일에 집에 없냐며 서운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빠의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아직 어려서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빠 고생했다’면서 뽀뽀를 해줄 만큼 자랐죠.”





소개로 만난 날 유동진 교위는 “밥 한 번 사 달라”는 말로 조심스레 호감을 표시했고, 아내 김경화 씨는 흔쾌히 “밥을 사겠다”고 했다고. 신기하게도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편안했고, 식성도 취향도 놀랄 만큼 비슷했다. 무엇보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대화가 끊이지 않을 만큼 생각의 결이 같았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서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고, 만만치 15일 만에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 달콤했던 연애와 깨가 쏟아지는 신혼을 지나 소연이가 태어났고, 부부에게는 ‘부모’라는 새로운 이름이 더해졌다. 그리고 세 가족이 함께하는 매 순간을 행복하게 채워가는 중이다.

### 가족이 함께 만드는 맛있는 추억

이제는 신선한 우유로 치즈를 만들 차례. 오늘 가족이 함께 만들 치즈는 소연이가 특히 좋아하는 스트링 치즈다. 신선한 치즈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뜨거운 물에 담가 다시 하나로 뭉치고 ‘쫄쫄’ 잡아당겨 스트레칭을 해주면 부드럽고 쫄깃한 치즈가 탄생한다. 가족 모두가 치즈를 동시에 잡고 조금씩 당기자 점점

### 소연이를 위한 선택, 목장 체험

오늘 목장 체험도 동물을 좋아하는 소연이를 위한 선택이다. 소에게 우유를 주는 것도 직접 치즈를 만들어 보는 것도 소연이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내 김경화 씨는 “소연이가 요즘 부쩍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데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면서 “아빠랑 엄마랑 같이 목장에 가서 치즈를 만들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매일 오늘만 손꼽아 기다렸다”고 했다.

가을이 깊어가는 목장 길을 따라 나란히 걷는 가족들. 태어난 지 한 달을 넘긴 송아지들이 가족을 반겼다. 소연이는 아직 한 살도 안 된 송아지가 생각보다 컸는지, 아빠 뒤로 쭉 숨어서 눈치만 보는 중이다.

“아빠가 뒤에서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용기를 내어 송아지에게 다가가는 소연이. 우유가 잘 나오는지, 송아지가 먹기 불편하지는 않은지 살뜰하게 살피는 모습이 제법 어른스럽다. “많이 먹고 빨리 쭉쭉 커야 돼.” 송아지에게 건네는 소연이의 예쁜 마음에 엄마 아빠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다.

유동진 교위와 아내 김경화 씨는 2009년 가을에 만나 사계절을 함께 보내고 이듬해 겨울에 ‘부부’가 됐다.



커지는 치즈. 마치 고무처럼 늘어나는 치즈 모양이 신기한지 소연이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는 순간 테이블 크기만큼 커진 치즈는 결국 찢어지고 말았다. 그래도 괜찮다. 다시 치즈를 뭉친 후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하면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치즈는 고소함과 쫄깃함을 더해간다.

가족의 손끝에서 맛있는 치즈가 완성되고 직접 만든 치즈를 이용한 카나페와 미니피자까지 만들고 나니, 제법 멋진 식탁이 차려졌다.

“오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소연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시간을 내서 함께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곳들을 함께 다니면서 더 넓은 세상을 소연이의 두 눈과 마음에 담아주고 싶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늘 함께하겠죠.(웃음)”

이제 남은 건 즐거운 시식 시간! “엄마, 아빠랑 함께 만들어서 더 맛있었다”는 소연이와 “소연이의 솜씨 덕분에 멋진 요리가 완성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엄마, 아빠. 맛있는 가을 풍경 속에서 가족의 맛있는 추억이 무르익어 갔다.



TIP

### 세종 꿈의 목장

가족과 함께 치즈 체험, 목장 체험, 치즈를 활용한 요리가 가능한 곳이다. 특히 이 모든 체험 활동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아이들과 나들이 떠나기 좋은 목장이다.

전화번호 044-867-7284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국촌2길 30-24

영업시간 매일 10:00 ~ 20:00 일요일 휴무

‘아빠! 어디가?’는 교정인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월간 <교정>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신청 메일 주소

- correct2015@naver.com  
- yjw1219@korea.kr

#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은 '안녕하신 동료'

〈인천구치소〉 의료과

의료기술서기관 민형식·김찬성, 약무사무관 김미숙,  
의료기술주사보 이창성, 공중보건과 고성혁, 교도 김효동

'어느 멋진 날'에 더 많은 동료들이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은 이벤트를 신청한 모든 교정공무원이 갖는 마음이다. 그러나 교정시설은 늘 바쁘게만 돌아가기에 모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 교정공무원들은 그 아쉬움을 간직한 채 '어느 멋진 날'로 향하곤 한다. 것처럼 동료들 향한 끝없는 애정을 보이는 모습은 인천구치소 의료과 직원들이라고 결코 다르지 않았다.

## 모이기조차 쉽지 않았던 '우리 동료들'

이번 호에 진행된 '어느 멋진 날'은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다. 인천구치소에서 처음 이벤트를 신청해온 주인공이 뜻하지 않게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한차례 일정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7명의 동료들이 어느 멋진 날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순조롭게 일이 흘러가나 싶던 그때 '어느 멋진 날'을 불과 이틀 앞두고, 이벤트를 인계(?)받았던 직원이 "바쁜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결국 이번 '어느 멋진 날'을 위해 모이게 된 직원들은 모두 6명. 이벤트의 '주인공' 자리를 또다시 건네받게 된 인물은 이창성 의료기술주사보다. 동료들을 이끌고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는 "제가 갑자기 이벤트를 안내해야 하는 역할을 하게 돼 조금 당황스럽다"며 웃어 보였다. 막중한 부담감이 내려앉은 그 기분, 충분히 알 것 같았다.

## 바쁜 일정 속에 피어난 웃음꽃

그만큼 인천구치소는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오늘 모인 여섯 명의 직원들 역시 "사실 근무 일정이 빠듯하다 보니 오늘도 조금 눈치를 보고 나왔다"고 멧쩍은 웃음을 섞으며 말했다. 직원들의 얼굴엔 분명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을 마음이 읽히는 순간이다.

그래서 오늘 '어느 멋진 날'팀의 바람은 컸다. 직원들이 더 행복하게 웃고 즐기기를, 나오지 못한 동료들의 뒤통까지 아쉽지 않도록 하루를 장식하길 기대했다. 다행히 곧



현금, 신용카드 및  
마일리지 전용  
원하는 좌석으로  
빠른 예매





시작된 사진 촬영 시간, 김미숙 약무사무관이 동료들과 사진 찍는 게 마냥 기쁘고 신난지 까르르 웃음을 터트리는 덕분에 마음이 놓였다. 그녀의 마음에 담긴 행복감이 전해오는 듯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오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좋은 동료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루 더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다양하게 사진 포즈를 취해 달라는 요청에 직원들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굽적이다가 도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멋진 그림을 만들어냈다.

극장 구석에 자리한 포토존에서도 직원들은 능숙했다. 김효동 교도, 고성혁 공중보건 의사가 젊은 혈기로 전봇대 조형물에 다리를 걸치고 매달리기에 성공한 것. “와아 잘한다!” 지켜보던 직원들이 탄성을 내지르자 더욱 열심히 매달리기에 집중하는 두 청춘들이다.

#### 수다 삼매경, 서로에 대한 격려가 이어지다

오늘 직원들이 관람할 영화는 ‘웃기다. 또 재밌다’는 입소문이 난 영화 <완벽한 타인>이다. 이번 영화 선정에는 김미숙 약무사무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모여 핸드폰을 통해 남몰래 비밀들이 드러나는 영화잖아요. 이 영화를 통해 나와 타인에 대해서 조금 진지한 성찰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화 관람을 앞두고 직원들은 우선 허기를 채우기 위해 식당을 향했다. 중국요리를 선택한 직원들은 숨을 한번 돌리고 본격적으로 인천구치소와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 좋은 동료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루 더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차분한 말투가 인상적인 김찬성 의료기술서기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벤트를 신청했던 사무관님이 최근 몸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함께하지 못하게 됐어요. 저희로서는 너무 아쉬울 따름이죠.”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관님 오시면 혼을 좀 내야겠어요!(웃음)”라고 농담을 던지는가하면 “빨리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따뜻한 바람도 전했다.

“사실 이 인원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일이 많지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답니다.”

김미숙 약무사무관이 말을 이어갔고, 이창성 의료기술주사보가 덧붙였다. “수용자를 상대하는 만큼 감정 노동자로서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은 인원들로 최대한 원활하게 일을 이끌어가기 위해 모두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의료과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이 자리를 빌려 가져봅니다.(웃음)”

특히 직원들은 교도소 근무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막내’ 김효동 교도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정작 김효동 교도는 “힘들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않았지만, 늘 정시퇴근을 못하는 막내를 보며 직원들은 “짠한 마음이 든다”고,

인천구치소 의료과 직원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결국 동료다. 김찬성 의료기술서기관은 “사람들의 마음이 잘 맞지 않으면 일 하기 쉽지 않은 곳이 교도소”라며 “직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 함께 산책하고 대화를 나누며 돈독한 동료애를 쌓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구치소로 발령받은 지 6개월이 조금 넘는 고성혁 공중보건의사는 “직원분들이 다 좋다”는 간단명료한 말로 소의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설명했다.

어느덧 주문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지자 직원들이 “맛있겠다!”고 환호했다. 즐거운 저녁을 함께하는 이 시간, 아까까지 고된 업무 속에 놓여 있던 직원들은 지금 오롯이 행복을 만끽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쳐 있었다.

인천구치소 의료과 직원들이 앞으로도 행복을 나누며 완벽한 동료가 되어가길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그리고 이들이 오늘 하루를 추억으로 삼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웃음’을 들추어보기를 바라본다. 고생하는 인천구치소 의료과, ‘언제나 파이팅!’이다.



“이벤트를  
먼저 신청해주셨던  
사무관님께 감사할”



#### 의료기술주사보 이창성

사실 제가 미니인터뷰를 진행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웃음)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벤트를 먼저 신청하셨던 사무관님 덕분에 우리 동료들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물론 미안한 감도 있는데요,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앞으로 많은 추억을 쌓아가며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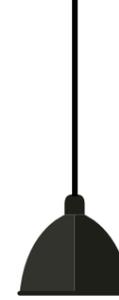
## 가족, 책으로 서로를 읽다

활자가 증발해버린 시대다. 그 자리에 이미지가 놓이고, 영상이 펼쳐진다.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독서는 '숙제'가 되어버린 요즘, 가족이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책이 그리는 세계에 가족이 발을 담그고, 특별한 교감의 장을 마련할 방법은 물론 있다. 독서 토론을 통해 가능하다. 책 한 권으로 부모와 아이가 하나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자.

### 아이의 내면에 성장의 기회를 심다

아이들은 독서 토론을 통해 능동적인 독서를 할 수 있다. 함께 작품을 읽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책의 내용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작품을 쉽고 즐겁게 받아들인다. 독서 토론이 올바른 독서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독서 토론으로 이해력, 논리력, 사고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도 높일 수 있다. 아이들은 독서 토론에 참여하게 되면 자신의 내용과 상반된 생각을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수용하기도 하면서 타인의 의견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운다.



리더십도 향상할 수 있다.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을 개인이나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고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서 토론을 하는 아이들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심어줘야 하므로 자신 있는 말하기 기술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독서 토론은 자신과 타인, 사회를 폭넓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일이다. 또한 아이들이 자신의 내면을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기회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

### 독서 토론을 위한 부모의 자세

처음부터 심오한 주제로 토론을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한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와 같은 답론이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주제로 제시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인 <장발장(레미제라블)>을 독서 토론의 도서로 선정한다면 '장발장에게 용서를 베푼 미리엘 신부의 행동은 옳은가?'와 같은 주제를 설정한다.

토론에 앞서 분위기를 편하게 하려면 아이의 수다를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소재는 어떤 것이라도 좋다. 아이가 일상에 대해 마음껏 떠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된다. 아이와 수다를 떨다 보면 주제를 정해두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다.

처음 해보는 토론이라면 이야기를 활용한 역할토론을 시도해 본다. 책 한 권을 정한 후 아이와 부모가 각각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을 맡아 각자의 상황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역할 토론의 장점은 부모와 아이가 동등한 입장을 가진다는 데에 있다. 서로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바뀌면 아이는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된다.

책의 선택권은 아이와 번갈아 가면서 정한다. 평소 아이에게 부족했던 인성을 채워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더욱 좋다. 토론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서는 안 되며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 아이가 주장과 근거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다.

토론이 끝나면 기록으로 남겨두도록 하자. 글쓰기를 싫어하는 아이라면, 한 줄 감상평이나 별점 평가의 단순한 기록도 효과적이다. 토론 후기는 아이뿐 아니라 부모도 함께 남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토론이 습관화되면 철학, 역사, 시사 등 단계적으로 주제의 폭을 넓히도록 하자. 이를 통해 아이는 자신의 가치관을 한 뼘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눈이 고통받는 요즘이다. 매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모니터를, 텔레비전을 바라보는 탓이다. 수시로 찾아오는 미세먼지의 영향도 적지 않다. 늘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눈은 특히 추위가 찾아오는 이맘때 더 취약해지곤 한다. 건조한 날씨와 찬 바람 등의 자극으로 다양한 안구질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길 수 있는 안구질환은 무엇이며, 평소 눈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생활습관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 찬바람 불 때, ‘안구주의보’



### 눈 건강을 지키는 생활의 습관

#### 1. 녹황색 채소, 과일을 섭취한다.

평소에 충분히 물을 충분히 마시고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이 많은 간, 달걀노른자, 과일과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다.



#### 2. 무심코 눈을 비비는 행동은 자제한다.

눈꺼풀의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편에 속한다. 이 눈꺼풀을 비비게 되면 각막이나 결막에 압력이 전달돼 상처가 날 수 있다. 손에 묻어 있던 세균이 침투해 감염성 안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3. 암모니아가 함유된 염색약을 자제한다.

눈에 악영향을 끼치는 염색약 성분은 암모니아가 대표적이다. 휘발성이 강한 암모니아는 직접 접촉하면 각막의 화학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암모니아가 함유된 염색약을 사용해야 한다면 내용물을 섞은 후 암모니아가 어느 정도 증발하도록 시간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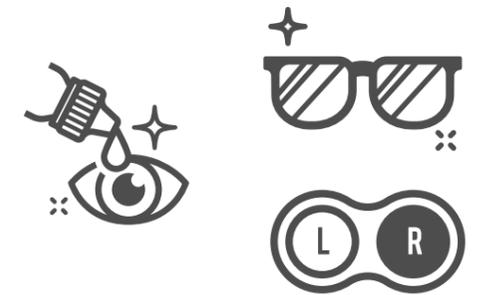


#### 4. 눈을 자주 깜빡여준다.

주변이 건조하다면 눈을 자주 깜빡여주는 것이 좋다. 눈물이 각막을 적셔 안구를 촉촉하게 유지해 준다.

### 눈의 상피가 상처를 입는 이유

자외선에 의한 각막염도 주의해야 한다. 직사광선을 오래 받으면 각막상피에 손상이 일어나 염증이 생기는 각막염은 눈이 충혈되고, 몹시 부으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안질환이다. 여름뿐 아니라 겨울에도 발생할 수 있다. 눈(雪)에 의해 자외선이 반사될 수 있어서다. 눈발에 반사된 태양광선은 바다나 들판에 비해 3~4배나 많은 자외선을 반사하기에 설원에서 스키 등의 겨울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눈발에 반사된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글라스를 끼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5. 눈동자를 자주 굴린다.

어깨가 결릴 때 근육을 풀어주듯 안구 근육도 풀어준다. 얼굴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된 채 눈으로만 위, 아래, 오른쪽, 왼쪽을 쳐다보자. 이어 시계방향으로 안구를 천천히 굴려준 후 반대방향으로도 굴려준다.

#### 6. 멀리 본다.

먼 곳의 물체를 하나 정하고 지그시 응시한다. 눈의 초점을 이용해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봐주면 근시와 난시를 예방할 수 있고 눈의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한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교정맨! 과연 그는 교정 공무원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나의 정체를 숨길 필요는 없어!



일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보람이 참 크군.



나는 달라졌어. 멋진 시민, 멋진 근로자가 된 거야.



너.. 넌! 네가 어떻게 여기에?

소식은 들었지. 이곳에 수감되는 줄은 몰랐지만.



역시 교도관이었어! 그럼 그렇지! 그러나 명심해!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딱지맨, 네가 들렸어. 죄를 지었던 사람도 뉘우치면 언제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과연 그럴까?



으아아~ 두고 보라고 교정맨~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다음 호에서는 교정맨의 뒷이야기가 펼쳐집니다.

# 철장 안으로 사람의 숨결을 불어넣다 수용자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방법은?

과거 미국의 교정은 수용자들을 가두고 통제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를 바꿔보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워싱턴주 교정시설(주 교도소)의 교도관인 댄 파초크다. 노동과 교육의 기회는 물론, 인간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교도소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것. 교도소의 의무가 범죄자를 수용하고 통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설파하는 그는, 교도소가 재활을 겸하는 공간이기를 기대한다. 작은 변화들이 일궈내는 교도소의 또 다른 정의는, 댄 파초크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

## 섬이 되어버린 수용자들의 모습

댄 파초크는 30년 전, 자신이 교도관으로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의 교도소를 떠올린다. 수용동 하나를 맡아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통제하던 교도소를 말이다. 그는 교도소의 입구를 지날 때부터 수용자들이 울부짖으며, 날뛰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는 수용자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수용시설을 고안해냈다. 폭력적이고 반항적인 수용자들을 격리해 수용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단순 절도범과 살인미수범이 한 공간에 있었을 때는,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다른 수용자에게 기술이나 속임수를 배워 중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댄 파초크는 자신이 만들어낸 이 새로운 수용시설에 대해 회의를 느껴갔다. 사람이 누군가와 관계가 단절되어, 고립되면 그 내면이 더욱 어둡으로 얼룩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까닭이다.



Dan Pacholke  
TED 강연 영상



**Prisons Need...**

---

to be:

- ✓ secure
- ✓ safe
- ✓ humane



## 작은 변화가 체계의 변화를 이끈다

댄 파초크는 수용시설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맞는다. 더 폭력적이고 반항적인 수용자들이 있는 교도소로 그가 배치된 때의 일이다. 이곳에서 그는 '팀'으로 구성된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교육시키도록 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교육 기간도 기존의 4주에서 10주로 늘렸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혼돈에는 혼돈'으로 대응했던 것과 달리 폭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교육'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폭력적이고 반항적인 수용자들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분노를 조절하고 폭력을 줄일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여, 감방 안의 화장실을 없앴다. 기존에는 8명의 수용자가 한 칸에 수용되는데, 변기 하나로 많은 갈등이 발생했다. 그는 감옥 안의 화장실을 없애는 대신 밖에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교도관과 수용자가 자주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수용자들은 교도관과 마주치는 기회가 많아졌고 이들은 서로 더 자주 터놓고 소통하게 되었다. 교감이 형성된 건 당연했다.

그리고 기존에 처벌의 용도로 놓았던 의자를 교육 받는 용도로 변경했다. 같은 소품이라도 다른 의도로 사용될 때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는 믿었다. 그의 기대대로 감옥은 더 깨끗하고 조용하고 안전해졌으며, 더 인간적인 곳이 되었다.

## 수용자들이 가치를 생산해낼 때

수용시설의 체계를 바꾸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래서 댄 파초크는 강조한다. "환경을 변화시킨 것은 거대한 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들"이라고. 그리고 이 변화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해낸다고 말이다.

댄 파초크는 "수용시설은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감행하는 재활 공간이 아니다"며 "수용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수용시설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민간시설이나 마을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빗물 모으기, 유기농 텃밭 가꾸기 등의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용자와 함께하고 있다. '수용자들이 미래를 위해 교육을 받는 공간'으로 수용시설이 작동되기를 바라는 그의 진심은, 다음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용시설은 이제 교도관과 수용자 모두에게 더 안전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이 안전해지면 우리는 단지 통제하는 것 외에 더 많은 일들에 힘을 쏟을 수 있습니다. 수용자들에게 의미 있는 노동과 기회의 원천을 제공하죠. 우리는 가두고 통제하면서도, 인간적인 환경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상반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수용시설이 실패한 사회를 담아두는 그릇이 아닌, 그 이상의 몫을 해낼 때 우리는 진정한 '교정국'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 TED 'How prisons can help inmates live meaningful lives'편 시청방법

www.ted.com에 접속한다 → 오른쪽 위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 검색창에 'Dan Pacholke'를 입력한다 → 동영상 중 Dan Pacholke : 'How prisons can help inmates live meaningful lives'를 재생한다.

\* 동영상 화면 오른쪽 아래의 말풍선 아이콘을 클릭하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도 지원된다.

#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새벽 네 시 오십 분. 또다시 작별의 시간입니다. 여느 문보다 다소 두껍고 무거운 문이 열리고, 설렘으로 가득 찬 표정의 그녀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어두운 복도를 걸어 나옵니다.

“부장님, 잘 지내세요.”

“잘 가요. OO 씨,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우리는 그렇게 짧은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응원의 말, 혹은 가벼운 농담. 10분 후면 담장 밖에 있을 그녀에게 전한 제 말 한마디가 과연 의미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저의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마지막 인사말로 항상 똑같은 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인사말이 다 있나 싶겠지만, 매번 저는 진심을 가득 담아 말합니다.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라고.

교도관으로서 일을 하며 가장 속상한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출소한 사람을 다시 교도소에서 수용자와 교도관이라는 관계로 마주하게 되는 때’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의 끈이야 길게 이어갈수록 좋다고 하죠. 그러나 담장 안에서 맺은 우리들 간의 인연은 간결하게 매듭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몇 번의 원치 않던 만남의 순간들을 접한 후부터 자연스럽게 제 바람이 마지막 인사로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저는 월요일이 오면 로또 복권을 사고는 합니다. 금요일에 사는 것이 당첨 확률이 가장 높지만 제가 복권을 사는 것은 당첨을 바라는 것이 아니기에 확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능성 혹은 희망’이라는 즐거움을 일주일 동안 지갑에 고이 간직하기 위해 로또를 구매합니다. 월요일에 사는 이유는 행복한 상상을 되도록 오래 유지하기 위함이지요. 토요일 저녁 추첨 시간이 되기 전까지 저는 머릿속으로 세계일주를 다녀보기도 하고, 빌딩을 가진 부자가 되어 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 사회로 돌아간 그녀들은, 제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로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로또를 샀을 때 행복한 꿈을 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녀들이 출소한 순간부터 그녀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는 합니다. 그리웠던 가족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보람된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고 싶었던 친구들과의 만남, 늦잠을

푸지게 자고는 먹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먹는 모습, 술 한 잔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모습. 누군가에게는 평범할지도 모르지만 너무도 꿈꾸고 기다렸던 특별한 순간들 속의 그녀. 그녀를 교도소에서 다시 마주하지 않는 한 저의 행복한 상상은 끝이 없는 것이지요. 그 끝이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아득해질수록 기다림의 시간이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7년 전 막 교도관이 되었을 무렵, 선배 한 분이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문득 떠오릅니다.

“교도관은 말이야, 줄 수 있는 것이 참 없는 직업이야. 안쓰럽다고 돈을 한 푼 빌려줄 수도 없고 근심이 가득한 수용자에게 담배 한 개비도 나누어 줄 수도 없어. 심지어는 마음도 주면 안 돼.”

당시에는 그 말에 대해 별 감흥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 자주 선배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교도소에서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스쳐 지나가 듯’이 아니라, 짧으면 며칠, 길게는 몇십 년까지도 우리는 함께 생활하다시피 합니다.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는지 수시로 살피고, 아프면 증상을 파악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 나아가 고민이 있으면 들어주고 함께 고민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도관들의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 대해 참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며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관계는 7년 전 그 선배님의 말씀처럼 조금 특별합니다. 밖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교도관대 수용자라는 특수한 관계로 묶인 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름을 부르는 것도,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는 것도,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도 힘듭니다.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그렇게 담장 안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담장 안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이겠지요. 수도 없이 반복된 일임에도, 오늘처럼 또 한 번 새로운 작별을 한 날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아쉬우면서도, 진심을 다해 대했고, 그렇기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담장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 제73주년 교정의 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교정인의 자부심이 꽃피운 날

지난 10월 26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는 제73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간헐적으로 빗줄기가 내리는 와중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든 이번 기념식에서 교정인들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자축하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뜨거운 다짐을 다시금 되뇌었다.



### 교정인들의 축제

매년 10월 말경이면 전국 교정인들에게 가장 큰 행사가 개최된다. 올해로 벌써 73주년을 맞는 교정의 날 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교정의 날은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28일 일본으로부터 교정시설과 수용인원, 교정공무원 및 교정 행정 업무 전반을 인수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오늘 행사 역시 변함없이 수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늘 수상자로 내정된 많은 인물들은 이른 아침부터 안팎에서 축하인사를 받느라 바빴고 행사장 앞에 마련된 다과상 앞에서는 이곳을 찾은 많은 손님들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에 여념이 없었다.

본격적인 식순 전에 열린 식전 행사는 오늘 제73회 교정의 날을 흥겨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장구치는 트로트 가수의 구성진 '짚레꽃'을 시작으로 팝페라 그룹 인첼로가 등장해 우리에게 익숙한 '오 솔레미오', '행복을 주는 사람' 등으로 분위기를 한껏 달군 것. 모두가 박수와 환호로 가수들에게 화답을 했다.

드디어 오전 10시 30분. 내빈들의 입장과 함께 제73주년 교정의 날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늘 행사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을 비롯,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홍섭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송성신 대한민국제향교정동우회장, 교정공무원 및 참여인사 등 약 8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을 시작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목숨을 바쳐 이 땅을 지켜온 호국영령 및 순직교도관에 대한 경건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순서는 교정행정 홍보영상 상영시간이다. 참교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국 교정시설의 교정교화 현상이 스크린에 띄워지자 모두가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지켜봤다. 그리고 격려와 자축의 박수를 보냈다.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공헌한 교정위원과 교정공무원에 대한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할 순서가 됐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안양교도소 박홍섭 교정위원, 국민포장은 서울동부구치소 박이균 교정위원, 전주교도소 황용주 교정위원, 부산교도소 하준섭 교정위원 등이 수상했고 대통령 표창은 광주교도소 안영목 교정위원, 대구구치소 김대희 교정위원, 천안교도소 김태오 교정위원, 공주교도소 권이학 교정위원 등이 받았다.

이외에도 교정공무원 24명, 교정시설 설계 공모전 수상자 12명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홍조근정훈장에는 법무연수원의 김명철 교정연수부장, 근정포장에는 법무부 김승만 보안과장, 의정부교도소 구지서 소장이 수상했고 교정시설 설계 공모에서는 고려대학교 오무열 외 2명이 대상, 서울시립대학교 김중울림 외 2명 등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 사람 한 사람 호명이 될 때마다 장내는 뜨거운 축하와 환영의 박수가 쏟아졌다.

### 희망의 교정을 약속하다

이어진 순서는 내빈의 축사와 기념사였다.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인물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다. 그는 “교정의 날은 지속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 교정공무원과 교정 참여인사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뜻을 새기는 날”이라고 운을 댄 뒤 그간 발전해온 교정분야를 치하한 후 “향후 법무부는 공정한 형 집행과 더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수용자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 재범을 억제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교정공무원 증원과 처우, 인사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해 큰 박수를 받았다.

다음 순서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국회의원의 축사다. “11년 전 저는 여러분의 식구였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여러분의 식구였다”고 운을 댄 박지원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사위원 전체 16명 중 저를 포함해서 표창원, 이완영 의원 등 다섯 명의 위원들이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문제, 교정 시설, 수용자 문제 등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였음”을 밝히고 “여러분과 3년 이상을 함께 살며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 법사위 3분의 1 이상 의원들이 여러분과 박상기 장관의 힘을 모아 여러분의 숙원 사업인 교정청 독립에 앞장 설 것을 약속하면서 “법사위원으로서 장관이 잘 하시는가 감독하고 교정청으로 독립되어 교정본부장이 교정청장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러분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해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다음 순서는 축하 영상이었다. 스크린 안에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은 “73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정을 시작했다”며 “광복의 빛은 잘못을 범한 수용자들에게도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며 “대한민국 교정은 세월의 무게만큼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범죄인 격리라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 수용자를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치하했다. 이어서 “여러분의 노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며 그동안 공정한 법집행과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교정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교정공무원 여러분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자부심을 갖고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을 만들어 나가는 교정가족 여러분을 응원한다”는 말로 축사를 갈무리해 객석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 교정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 공연을 위해 부지런히 무대가 정리되고 객석에서는 편안한 미소와 담소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 해에도 영화 <하모니>의 실제모델이었던 청주여자교도소 합창단 ‘하모니’가 무대에 올랐다. 먼저 남성 교정공무원이 힘이 넘치는 음성으로 ‘우정의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끌어 올리고 이어서 ‘하모니’는 ‘별’,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세상’ 등을 그야말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불러 뜨거운 박수세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교정공무원과 이들 자녀 그리고 객석 모두가 함께 부른 ‘교도관의 노래’로 오늘 기념행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서 영예의 동백장을 받은 안양교도소 박홍섭 교정위원은 “기쁘다기보다는 감사의 마음이 크다. 이번 상은 제 개인이 받은 게 아니라 전국 4,800명 교정위원을 대표해서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나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신 교정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큰상을 받았지만 언제나 초심을 잊지 않고 해오던 일을 꾸준히 계속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고 국무총리상을 받은 군산교도소의 최봉규 교정위원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듯 큰 상을 받은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댄 후 “향후 무기수들에 대한 지원, 교정위원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다른 교정위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자리를 함께 한 아내 문정숙 씨는 그간 남편의 고생이 떠오르는 듯 살짝 눈물을 보이기도. 1997년부터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교정위원으로 일해온 장성운 승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전하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다. 이번에 함께 수상하신 많은 분들께 축하인사를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교정위원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늘 고생이 많은 교정공무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수상자와의 기념사진 촬영이 끝난 뒤 내빈들은 바로 옆에서 열리고 있는 제47회 교정작품전시회장 개관식 현장으로 이동을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최강주 교정본부장, 김종천 과천시장, 승성신 대한민국의학교정동우회장, 박홍섭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을 가진 후 전시된 교도작품 및 문예작품 1,408점을 함께 관람하면서 수용자들의 빼어난 솜씨에 감탄과 격려를 금치 못하기도 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사회를 위해, 국민을 위해 가장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교정기관 관계자들과 교정공무원들!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며 더 밝은 미래를 약속했던 오늘 하루가 큰 지지대가 되길 바라본다. 전국의 교정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제1회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법무부는 지난 6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전은 교정시설 건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학생들의 다채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새로운 교정시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267팀이 참가한 가운데 총 15편이 최종 수상작품(본상 6팀, 입선 9팀)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교정의 날을 기념하여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10월 26일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수상팀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중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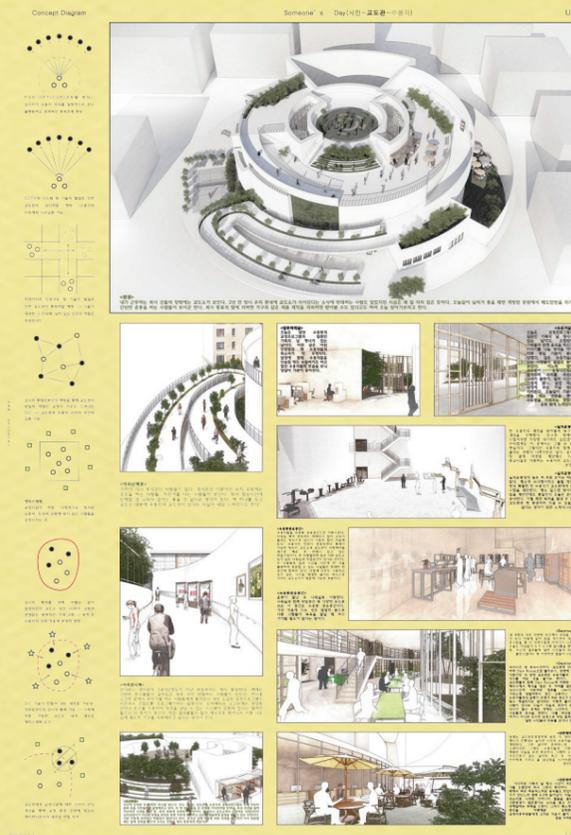


PAN-EPIDEIXI

고려대학교 오무열 · 백인기 · 최현성



18세기 서양의 감시 위주로 설계된 교정시설 모델을 수용자 처우가 중심이 되는 모델로 발전시켰다.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일방적으로 보는 관계가 아닌, 시민들에게 외부공간을 개방한 도심형 교도소를 표방한 것이다. 중앙의 수용시설을 둘러싸고 시민이 드나들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수용자는 올바른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하고, 교정공무원은 그 연결을 돕는 매개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민의 감시와 관심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기반시설로서의 교정시설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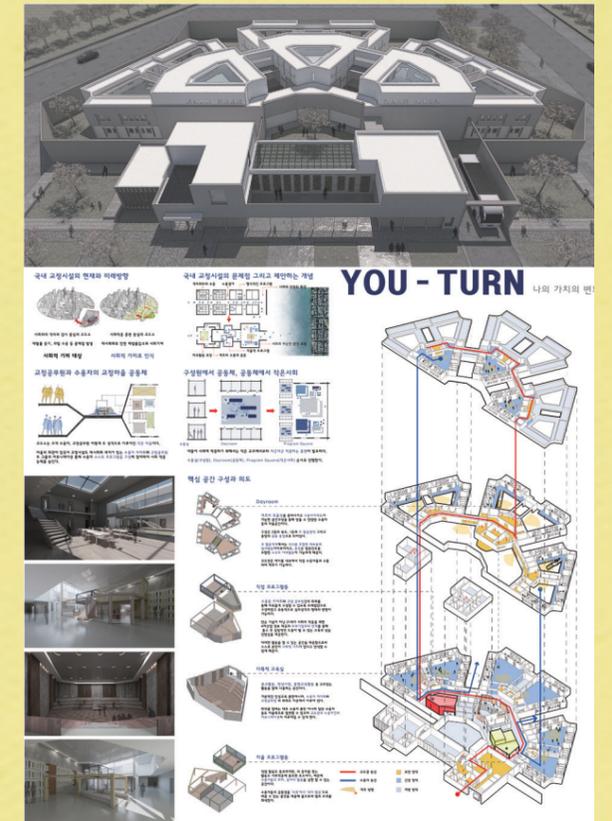


YOU-TURN

선문대학교 김동민 · 손용운 · 윤치호



수용시설을 보안영역, 직원영역, 출입영역 등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 관계를 재해석했다. 우선 수용동과 보안영역을 하나의 동으로 묶어주고 보안영역을 중심부에 위치시켜 계호와 상황조치의 효율성을 높였다. 직원영역은 교정공무원들의 충분한 휴식시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용동과는 독립적으로 배치하였으며, 출입영역에는 출입관리 영역 외에 빠른 상황조치를 위한 의료동과 신입 수용자 관리준비실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계호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가 개선된 교정시설이 탄생되었다.



# 교정조직 독립의 필요성과 과제(下)<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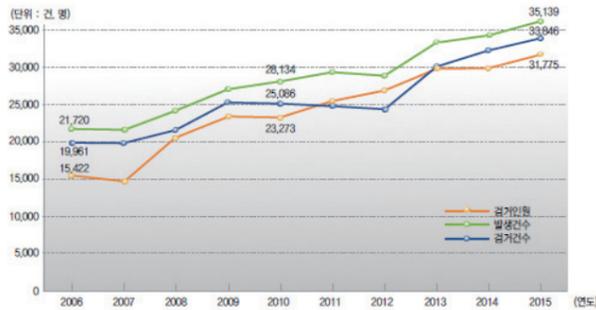
Research Paper

## IV. 교정환경의 변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

### 2. 교정수요의 변화

#### 2) 흉악범죄, 정신장애자 범죄의 증가와 경력범의 증가

공식통계상에 나타난 흉악범죄의 발생 건수를 보면 2006년 2만 1,000여 건 정도였던 것이 2015년에는 3만 5,139건으로 22%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도표 1-7〉 강력범죄(흉악) 발생 및 검거 추이 (2006년~2015년)

〈그림 2〉 흉악범죄의 발생 및 검거 추이

출처: 범죄백서 2016, 85페이지

흉악범죄의 증가와 함께 눈여겨볼 또 다른 점은 정신장애자가 저지르는 범죄의 증가이다. 범죄백서(2016)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2015년에는 46% 증가하였다. 흉악범죄와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의 증가는 불특정다수의 범죄 피해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1) 2018년 '교정' 10월 호에 실린 상편의 글과 이번호에 실린 하편의 글은 교정연구 제28권 제2호(2018. 06. 30.)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표 4〉 정신장애자 범죄추세

	2011	2012	2013	2014	2015
형법범죄	4,051	4,288	4,982	5,426	5,952
살인	86	65	59	64	66
강도	55	45	32	42	36
방화	111	87	122	126	125
성폭력	246	339	473	499	554

출처: 범죄백서, 2016, 162페이지

흉악범죄자의 전과횟수를 보면(2015년 기준) 전과가 없는 경우보다 전과가 있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특히 4범 이상의 경력범의 비율이 21%에서 45%에 이른다. 전과를 가진 범죄자들의 계속된 범죄는 교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정본부가 풀어야 할 큰 과제이다.

〈표 1-16〉 강력범죄자(흉악) 전과횟수 구성비 (2015년)

전과횟수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계	1,050(100)	2,046(100)	1,480(100)	27,199(100)
전과없음	238(22.7)	442(21.6)	319(21.6)	10,103(37.1)
1 범	112(10.7)	200(9.8)	179(12.1)	3,576(13.1)
2 범	68(6.5)	149(7.3)	137(9.3)	2,191(8.1)
3 범	77(7.3)	134(6.5)	107(7.3)	1,509(5.5)
4범 이상	346(33.0)	926(45.3)	612(41.4)	5,708(21.0)
미 상	209(19.9)	195(9.5)	126(8.5)	4,112(15.1)

주: 대검찰청(2016), 「범죄분석」.

〈그림 3〉 흉악범죄자 전과횟수 구성비(2015)

출처: 범죄백서 2016, 94페이지

다른 한편 범수별 재복역 현황을 보면 경력범죄자의 증가가 더 확실해진다. 제시된 기간 중 초범의 재복역 비율부터 5범 이상 출소자의 재복역 비율까지 모두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 5범 이상의 3년 내 재복역 비율을 보면 2008년에 55.6%였던 것이 2016년에는 61.3%로 증가하였다. 2012년에 출소한 3,300명의 5범 이상 출소자 중 2,022명이 3년 이내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표 1-82. 범수별 재복역 인원 현황(2008년~2016년)

주사(연도)	범수	범수					
		계	초범	2범	3범	4범	5범 이상
2008 (2004)	출소 인원	29,875	14,620	6,571	3,348	1,658	3,478
	재복역 인원	6,772 (22.7%)	1,305 (8.9%)	1,581 (24.1%)	1,129 (33.7%)	823 (44.3%)	1,934 (56.6%)
2009 (2005)	출소 인원	27,489	13,593	5,967	2,866	1,760	3,303
	재복역 인원	6,169 (22.4%)	1,068 (7.9%)	1,428 (23.9%)	1,007 (35.1%)	773 (43.9%)	1,893 (57.3%)
2010 (2006)	출소 인원	24,626	11,319	5,163	2,737	1,667	3,740
	재복역 인원	5,553 (22.5%)	964 (8.5%)	1,187 (23.0%)	841 (30.7%)	697 (41.2%)	1,874 (50.1%)
2011 (2007)	출소 인원	24,151	11,921	4,614	2,418	1,582	3,616
	재복역 인원	5,396 (22.3%)	1,088 (9.1%)	1,093 (23.7%)	826 (34.2%)	655 (41.4%)	1,735 (48.0%)
2012 (2008)	출소 인원	25,802	13,211	4,833	2,402	1,650	3,706
	재복역 인원	5,737 (22.2%)	1,252 (9.5%)	1,176 (24.3%)	825 (34.3%)	647 (39.2%)	1,837 (49.6%)
2013 (2009)	출소 인원	25,725	13,017	5,087	2,332	1,556	3,733
	재복역 인원	5,699 (22.2%)	1,174 (9.0%)	1,190 (23.4%)	816 (35.0%)	635 (40.8%)	1,884 (50.5%)
2014 (2010)	출소 인원	25,066	12,792	4,735	2,282	1,539	3,718
	재복역 인원	5,547 (22.1%)	1,103 (8.6%)	1,076 (22.7%)	817 (35.8%)	622 (40.4%)	1,929 (51.9%)
2015 (2011)	출소 인원	23,045	11,974	4,369	2,093	1,281	3,328
	재복역 인원	4,936 (21.4%)	1,045 (8.7%)	982 (22.6%)	711 (34.0%)	518 (40.4%)	1,680 (50.5%)
2016 (2012)	출소 인원	22,028	11,749	3,931	1,793	1,255	3,300
	재복역 인원	5,465 (24.8%)	1,152 (9.8%)	1,007 (25.6%)	694 (38.7%)	590 (47.0%)	2,022 (61.3%)

〈그림 4〉 범수별 재복역 인원

출처: 범죄백서, 2016, 94페이지

### 3. 교정의 전문화 추세와 당면과제

#### 1) 과학적 분류심사, 재범위험성 평가, 치료적 개입 등 교정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

범죄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개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자의 교정은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과거의 구금 중심의 교정행정이 더 이상 재범방지에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하에 치료와 교정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전문적인 교정교육과 심리치료를 위한 시도를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용자들의 정신질환과 중독,

심리적 장애에 대한 치료를 위해 2016년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하였고, 2017년 기준으로 9개의 심리치료센터를 설치하여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들 센터에서는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 중독, 동기 없는 범죄, 정신질환 수용자를 대상으로 기본과정, 집중과정, 심화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경력경쟁 채용을 다변화하고 있는데, 간호사, 임상심리사나 상담심리사 등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을 위한 전문가들은 최근에 와서야 채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백화점식 프로그램 시행으로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보완할 점이 많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대상 인원도 한정적이고 모든 교정시설에 심리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남부 교도소에 설치되어 있는 분류센터도 아직 정식기구화되지 않아 앞으로 교정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와 함께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위한 전문 의료진의 확보도 교정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교정통계연보에 나타난 의료인력 현황을 보면 의료와 간호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범 위험성 평가나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심층 분류심사 등을 위한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 단순 구금확보와 고충 상담의 차원이 아니라 전문적인 위험성 평가와 분류심사, 심층적 심리상담 등을 위해서는 전문가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것이 교정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관점에서 2010년부터 분류직과 교회직이 교정직으로 통합된 것은 전문성 강화 전략과는 반대되는 결정이었다.<sup>2)</sup>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교정행정 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한 교정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현재의 교정본부 조직 으로서는 범죄자 관리 및 재사회화를 위한 정책 콘텐츠의 다양화와 전문성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독립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 무리가 있다.

#### 2) 가해자 관리에서 가해자-피해자의 관계회복을 위한 중추적 역할에 대한 기대 증가

전통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가와 범죄자의 관계로 규정되었고 범죄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의 회복에

2) 교회직과 분류직이 교정직으로 통합된 이유는 먼저 야간근무 등 수용관리에 필요한 인력부족 상황에서 교회직과 분류직의 전환으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을 볼 수 있었고 교회직, 분류직의 입장에서 보면 승진 등에서 오는 불리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의 필요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하지만 처벌 위주의 형사사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회복사법의 등장으로 범죄를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가해-피해일 뿐 아니라 범죄자와 피해자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관계를 끊는 사건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범죄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망가진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대두된다. 현재 형사사법의 여러 단계에서 회복사법의 철학을 반영한 피해자 공감 프로그램, 배상 프로그램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가해자의 책임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일 등을 중심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단계가 교정단계이다. 교정단계에서의 회복 사법 프로그램은 검찰단계의 기소여부나 법원단계에서의 양형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진정한 책임 인정과 관계회복, 그리고 피해보상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장(場)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배상할 경우 가석방 결정에 반영한다거나(이진국, 2017:18), 회복사법의 이념을 징벌제도에 적용시켜 보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박병선과 김안식, 2016:102-105). 회복사법의 가치는 범죄자 교정의 목표와 잘 부합하는 면이 있다. 앞으로 이 분야의 정책개발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3) evidence-based correctional policy를 위한 정책연구와 기획에 대한 요구 증가

증거기반의 교정(EVIDENCE-BASED CORRECTIONS)이란 교정의 전문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다. 맞춤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그것이 다양한 수용자에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특정 프로그램이 특정 대상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축적되어야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현재도 사전-사후 검사 등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으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검사도구로 측정된 결과는 프로그램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과대평가할 수도 있다. 객관적이면서도 타당성 있는 평가도구의 개발과 수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 성폭력, 약물, 알코올,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시행 초기부터 과학적 방법에 의한 효과성 검증을 수행하고 그 데이터를 축적하며 그것을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환류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교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를 두고 있고 많은 주(州) 정

부의 조직도에서도 office of research and planning(연구기획국)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sup> 더불어서 수용자의 수용생활, 직업훈련, 작업, 의료, 교육, 여가, 종교, 상벌 등의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개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분석방법 등 첨단 방법론을 활용하여 데이터 패턴 및 상관관계 등을 추출하여 정책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적 통계분석가를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수용자가 교도소에 입소하여 출소할 때까지 생산해 내는 정보의 양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범죄정보, 가정환경, 개인특성, 학교생활, 교우관계, 취업경력에서부터 교도소에 서의 각종 처우 관련 자료, 접견, 통화, 상벌 등이 보라미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면 교정정책의 수립-집행-환류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 4)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연계와 통합에 대한 요구

범죄자 처우에 있어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는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직제로 보자면 교정본부는 시설 내 처우를, 범죄예방정책국은 사회 내 처우와 소년보호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 내 처우의 도입이 1989년에 이루어져서 그 역사가 시설 내 처우보다 짧긴 하지만 세계적 형사정책의 방향은 사회 내 처우의 확대이다. 권해수(2014)는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로 양분되어 있는 교정과 보호가 재범방지과 성공적 사회복귀, 그리고 사회 안전의 확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단지 정책수단 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권해수, 2014:21). 대다수의 학자들은 교정과 보호의 연계 및 조직 일원화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교정청 독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보호영역과의 의사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서 가석방과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위해서도 교정-보호 간의 연계와 협력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reentry(사회재진입) 전략과 second chance act 등은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시설 내 처우와

3) 2012년 8월에 체계적 연구기획을 위한 교정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향후 교정 연구소로 전환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현이 되지는 않았다(김태훈, 2012: 173)

사회 내 처우의 협력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다. 더 나아가 고위험 출소자 정보를 경찰, 검찰, 법원과도 공유하고 출소자 관리에 대한 협업을 추구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출소자 사회정착 정책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 연구를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확대되어야 한다.

### 5) 전문성을 가진 우수인재 선발과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

지금의 교정직 선발체제는 한계가 있다. 형사소송법, 형법 등 법과목을 중시하는 데 비해서 인간의 본질과 인간심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하다. 최근 들어 9급 교정직 공무원 수험생들은 교정학을 시험과목으로 택하기보다 공부의 양이 적고 점수 받기에 보다 용이한 과목(예컨대 사회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가고 있다고 한다. 교정공무원이 되려고 하면서 교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로 입직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선발한 후 교육훈련을 잘 시키면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직업으로서의 교정공무원의 역할 및 기능을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정공무원법의 제정으로 교정직을 특정화하고 인재선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여러 선배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교정공무원의 전문적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할 필요도 있다.

## V. 교정조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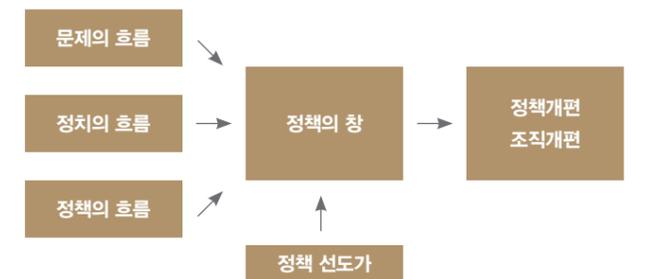
### 1. 정책의제 분석틀로서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

교정조직의 독립을 위한 노력들이 20년 넘게 누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조직의 개편을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 각종 정책형성과 정책변동, 정부조직개편, 정책의제 설정 등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학 분석 모형이 해답을 제시해 줄지도 모른다. 이미 일어난 조직개편이나 정책개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직개편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파악된다면 앞으로 조직개편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권석천, 장현주(2015:339-340)는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sup>4)</sup>을 검찰개혁과정에 적용하였다. 다중흐름 모형이란 문제의 흐름(problems stream), 정치의 흐름(politics stream), 정책의 흐름(policies stream)이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세 가지 주요 흐름이라고 규정한다.

먼저 문제의 흐름은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등을 통해 대중이나 정책결정자들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미 있었던 문제라도 그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고 해석됨으로써 정책의제가 될 수 있다. 정치의 흐름(politics stream)은 국가적 분위기, 국민여론의 변화,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교체와 같은 사건을 말하며, 정책의 흐름은 기술적 실행가능성, 예산 확보 여부, 정치적 수용가능성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흐름이 어느 특정 시점에 합류하면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리게 되고 정책의 창이 열릴 때 이 세 가지 흐름을 잘 결합시켜 실행을 완성하는 행위가를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라고 보는 것이 다중흐름모형의 주요 내용이다(〈그림 8〉 참조).



〈그림 8〉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이러한 분석틀을 가지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과정을 분석한 결과, 뇌물수수 검사 사건, 성추문 검사사건 등 검사들의 비리가 알려지고 검찰 내부의 자정능력이 상실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고 그동안 잠복해 있던 검찰에 대한 불신이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문제의 흐름을 낳았다고 보았다. 그 당시 국가적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 신문의 검찰 관련 보도와 사설 건수로 분석하였는데 모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결국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캠페인으로 이어지고 검찰개혁이라는 대선공약을 이끌어내는 정책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을

4)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은 Kingdon(1984)에 의해 제시된 모형으로 정책의제 설정이나 정책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선도자의 역할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모형이다(권석천, 장현주, 2015:338-339에서 재인용)

만들어내었다. 이 과정에서 대선후보들이 정책선도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낸 결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이동규, 우창빈, 강민규(2015)는 다중흐름 모형을 적용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신설과정을 분석하였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됨으로써 게임시장이 활성화되고 심의해야 할 게임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게임 모니터링을 할 인력은 거의 전무하였고 전신인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권력화, 각종 비위 사실들이 발각되면서 게임 심의의 일관성 및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문제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정치의 흐름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연장과 발전적 해체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의 생각이 서로 달랐고 타협점을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며 국가적 분위기인 여론은 위원회의 폐지 쪽으로 형성되면서 정책의 흐름이 결정되었다. 이때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을 잘 엮어 정책의 창을 열고 정책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애쓴 정책선도가는 계속적인 입법발의를 통해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이었다. 다중흐름 모형이라는 분석틀에 의한 두 사례분석은 정책결정이 내려진 후에 그러한 정책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내려지게 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정조직의 독립을 위한 노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논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한 조직개편의 요소를 찾아보는 것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요소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내부자끼리 필요성과 논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2. 다중흐름모형의 요소를 통한 교정조직 독립 분석

### 1) 문제의 흐름

교정조직의 독립에 대한 학자들과 조직 내부에서의 지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여 년 전부터 범죄의 양적 변화와 질적 다양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재범의 증가와 그로 인한 시민안전의 위협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증가하면서 교정행정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한 강조가 지속되었고 교정행정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담아내기에 현재 수준의 지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인식되고 있다. 교정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적절한 규모와 권한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 한계로 보인다. 학계의

관심과 조직 내부에서의 기대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반면에 일반 대중들이나 정부 핵심관계자들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가 부재한 상황에서 문제의 흐름을 교정청 독립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 2) 정치의 흐름

정치적 흐름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체제의 변화와 국가적 분위기(여론)이다. 먼저 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정책결정에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주지만 대통령제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고 그것이 표현된 것 중 하나가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예를 들자면, 문재인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10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앞으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집행해 나갈 국정과제에 민생치안 역량강화,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 R&D 활성화와 같은 경찰청 관련과제와 소방청 독립, 소방인력 장비확충,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검토가 각각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교정관련 정책은 전혀 없다. 범죄의 양적 질적 다양화는 형사사법의 첫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인 교정까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경찰력 강화와는 달리 교정환경 개선에 대한 의제가 없는 것은 범죄환경의 변화라는 현상을 교정역량의 강화로 연결 지으려는 작업이 전혀 시도되지 않았거나 시도되었더라도 설득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범죄자 교정교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교정조직 개편에 우호적인 국가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론의 긍정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여 자신들의 조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기관은 소방청이다. 원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직업적 성격 때문에 긍정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그들의 고통(불 끄다가 땅바닥에서 잠을 청하거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 소화 장비를 사비로 구입하고 있다는 등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소방관의 처우에 대한 청원이 나오고 소방인력 증원과 장비확충이라는 과제를 국정과제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을 볼 때 국민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먼 교정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최근에 와서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이나 예능프로그램 <착하게 살자> 등을 통해 교도소가 일부 공개되고 교정직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교정행정이 추구하는 것이 '국민세금으로 범죄자를 편하게 살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임을 국민들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출소자의 성공사례나 개과천선한 범죄경력자에 대한 스토리를 미디어에 자주 노출시키고, 언론인과 인권단체 관련자들에게도 교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정행정에 대한 지원세력을 확보해야 한다.

### 3) 정책의 흐름

과거에도 교정청 설치를 추진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 1982년에 대통령 지시로 교정청 신설이 검토된 적이 있으며, 1991년에 교정청 설치 전 단계로 4개 지방교정청이 신설되었고, 2003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교정보호청 신설이 논의되었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과 2013년에 의원입법 발의가 있었다. 아마도 추진했던 장관의 퇴진 등 동력이 약화되어 정책의 흐름이 결실을 맺지 못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이명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 교정청 승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 의제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은 정책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성호 의원도 개정안 발의를 한 후 교정학회와 함께 세미나를 열고 이 자리를 만든 것도 정책선도자의 역할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 4) 평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다중흐름모형이라는 것은 이미 완결된 정책변화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분석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이 가지는 시사점은 지금까지의 정책변화 노력에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적 고민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가 아닐까 한다.

결국 현재 교정조직 독립에 대한 노력은 제한된 수준에서의 문제의 인식, 그리고 정책 선도가에 의한 입법 노력이 있는 것이고 국가적 분위기나 정치권에서의 의제 채택의 측면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정책결정이라는 것이 오랜 기간 정성을 들이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권력자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미리 회의적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속적으로 문제의 흐름이나 정치적 흐름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VI. 결론

사이코패스의 범죄, 정신질환자나 사회 불만을 품은 자에 의한 동기 없는 범죄 등 최근 다양화, 흉포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한 과학적 원인 규명과 전문적 개입을 통한 재범방지는 우리사회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범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며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오랫동안 학계와 교정조직 내부에서 공감을 갖고 있지만 정부조직 개편의 동력은 국민의 생각과 여론에 기댈 때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교정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소방방재청이 신설되거나 범죄와의 전쟁 후 치안수요에 대한 요구에 의해 경찰청이 신설된 것을 보면<sup>5)</sup> 교정에서 이렇게 국민의 시선을 끌 만한 계기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소방방재청이나 경찰청과 같이 교정조직의 목적도 국민의 안전인데 교정은 다른 두 기관에 비해서 국민안전과 지역사회 보호라는 그 역할을 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외국 교도소처럼 집단 폭동(riot)이 일어나거나 탈옥사건 등이 일어나면 국민적 관심이 주어지고 그로 인해 교정조직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다중흐름모형에서의 문제의 흐름에서 큰 역할을 함) 그런 촉발사건을 통해 교정조직을 개편해야겠다는 문제인식의 흐름을 심화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범죄자의 관리와 수용자 인권, 출소자 재범방지 등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전문적 기구로서의 위상에 대해 설득할 수 있을까? 물론 조직개편이 모두 장기적인 로드맵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결단에 의해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적 결단을 위해서 필요한 건 문제의식의 공유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교정행정이 하는 일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큰 가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도록 설득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교정행정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확보하고 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정책의제를 만들어가도록 독려하며 협조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5) 1974년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을 계기로 경호의 중요성과 경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같은 해 1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승격시켰으며,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경찰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인식의 확산으로 1991년 경찰청으로 승격하였다. 소방방재청의 경우 1992년 소방본부로 독립하고 대구지하철 참사로 국민안전에 대한 문제인식의 확산에 힘입어 2004년 소방방재청으로 승격하였다. 본부체제에서 '청'으로 독립하는 데 각각 17년과 12년이 걸린 것이다.

## 교정학

## 지상강좌

교정학은 교화개선 및 교정행정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이론적·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학과 심리학, 정신의학 등 관련 학문의 종합적 응용이 요청되는 분야다. '지상강좌' 코너를 통해 교정학 관련 문제를 풀어보자.



## 1. 다음 수용자의 휴대금품 중 원칙적으로 영치할 수 있는 것은?

- 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 ② 물품의 종류·크기가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 ③ 발·수신이 금지된 서신
- ④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발·수신이 금지된 서신은 사유를 알린 후 영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영치 불허 대상>

1.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2. 물품의 종류·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3.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그 밖에 영치할 가치가 없는 것

정답 ③

## 2. 현행법령상 음식물 지급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수용생활 태도,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 ②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1명당 1일 550g을 기준으로 하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 열량은 1명당 1일 2,500kcal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소장은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주 2회 범위 내에서 주식으로 빵이나 국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주·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②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1명당 1일 390g을 기준으로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주식으로 빵이나 국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즉 횡수 제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정답 ④

## 3. 현행법령상 위생과 의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할 의료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④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담당 교도관으로 하여금 관찰·조언 또는 설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필요적 규정.

②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임에 유의해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관찰·조언 또는 설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③

## 4. 현행법령상 의료에 관한 다음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는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 ③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외부의사가 수용자를 진료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소장이 재량에 의해 허가할 수 있다.

정답 ③

## 5. 다음 중 현행법령상 실외운동을 할 수 없는 사유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 ②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 ④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실외운동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다.

<실외운동 제한사유>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3.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정답 ③

# 교정본부 NEWS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November 2018 Vol. 510

## 법무부차관, 경북북부지역 교정시설 정책현장 방문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 10월 16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하여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직원 격려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후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서는 경북북부지역 4개 기관 간부와 함께 교정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난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여주엑스포 등 5개 경기장에서 치러진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18개 교정기관 수형자 32명이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헤어디자인·타일 등 12개 직종에서 은상 4개, 우수상 4개, 장려상 12개를 수상하여 최근 참가한 전국 기능경기대회 중 가장 많은 입상자를 배출하였다.



## 교정본부장, 홍성교도소 등 정책현장 방문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 10월 4일부터 이틀간 홍성교도소와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를 방문한 데 이어 10월 18일부터는 이틀간 정읍교도소와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를 찾았다.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이번 정책현장 방문을 통해 주요정책 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정위원 간담회를 주재하여 수용자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 교정본부장, 언론 인터뷰를 통한 교정 홍보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 10월 23일 교정행정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를 위해 세계일보와의 언론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교정행정이 나아갈 방향, 현안 및 과제, 교정청 독립의 필요성 등을 주로 다룬 기사는 지난 10월 30일 언론 보도되었다.



## 「마음나래 프로그램」 내 마음치유의 날 실시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나래 프로그램」 내 '마음치유의 날'이 지난 10월 4일 대구교도소를 시작으로 총 8개 기관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정공무원 자살사건 등이 발생한 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직원들에 대한 심층상담 및 IES-R-K(한국판 사건 충격 척도, Impact of Event Scale - Revised) 등 심리검사를 통한 1:1 스크리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심리적 위기상황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 제6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 개최

제6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가 지난 10월 31일 서울남부구치소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강릉교도소 등 10개 기관, 직원 30명이 참가한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심정지 상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응급처치 등을 10분 이내에 시연하는 경연이 진행되었다. 최우수기관에는 경주교도소, 우수기관에는 공주교도소와 소망교도소가 선정되어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제47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제47회 교정작품전시회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과천시민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최강주 교정본부장 등 9명이 참석한 개관식으로 포문을 연 이번 교정작품전시회에는 공예품 239점, 문예 97점 등 336점이 전시되었다. 부대행사로는 국화 전시회, 교도작업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이 진행되었으며 어묵, 훈제닭 등 교도작업 생산품을 시식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 수용자 문예지 '새길' 2018년 가을호 발간 및 배부

수용자 문예지 '새길' 2018년 가을호가 10월 25일 발간되었다. 새길은 직원과 교정위원, 수용자의 문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계절마다 발간되고 있다. '추억'을 테마로 한 이번 가을호에는 총 419편의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이중 직원 1명과 수용자 48명의 문예작품이 선정되었다. 기획기사로는 '가을, 풍요로운 축복의 계절' 1편이 수록되었다. 한편, 수용자 문예지 '새길'은 약 7,000부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되며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 서울지방교정청

###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유경열

####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공모전 입선작 시상식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10월 19일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입선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에는 기존 교정시설이 갖고 있는 정형적인 틀을 탈피한 창의적인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었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 등 9개 대학팀이 입선하여 시상식에서 상장 및 기념품을 수여받았다.

### 서울구치소 / 교도 변무관

#### 교정의 날 기념 직원 가족 참관 행사 실시

서울구치소는 10월 26일 교정의 날 행사를 기념하여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에는 교정 장비 체험, 교정 정책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마련되었다.

### 안양교도소 / 교도 김희락

#### 이완영 국회의원 등 교정현장 방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국회의원, 최강주 교정 본부장, 정유철 서울교정청장 등이 10월 4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하였다. 현황 보고를 받고 교정현장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한 이들은 수용거실 및 작업장 등 시설전반을 둘러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했다.

### 수원구치소 / 교사 유동경

#### 이도경 작가 초대전 실시

수원구치소는 2018년 10월 8일부터 5개월간 민원 봉사실 내에 마련된 문화의 공간인 '소망갤러리'에서 '이도경 작가 초대전'을 실시한다. 오는 2019년 2월 28일까지 계속될 이번 전시회는 열린 교정행정을 정착하고,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지역주민 및 민원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평안을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동부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 신규 교정직 공무원 실무수습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10월 8일부터 5일간 제279기 신규 교정직 9급 교육생 12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은 "최신 교정시설인 서울동부구치소의 발전된 시설과 교정행정 절차를 통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확고한 자존감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 인천구치소 / 교사 김대현

#### 2018년 사격훈련 실시

인천구치소는 10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소재 제507보병여단 2세대 사격장에서 '2018년 사격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에 앞서 총기사용법이 사전에 교육되었으며, 훈련은 안전 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사격우수자로 선정된 한 직원은 "교도관으로서 몸과 정신을 수련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복종우

#### '민원인과 함께 하는 교정의 날' 행사 실시

서울남부구치소는 제73주년 교정의 날을 앞두고 10월 26일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과 함께 하는 교정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행사를 통해 종합민원실을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따뜻한 차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경청함으로써 딱딱하고 경직될 수 있는 교정행정의 이미지를 전환하도록 하였다.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권오일

#### 수용자 마음치유 콘서트 개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0월 18일 대강당에서 기타리스트 안형수와 로맨틱 앙상블을 초청해 자유와 힐링을 주제로 한 '마음치유 콘서트'를 공연하였다. 이번 콘서트에는 다양한 음악이 연주되었으며 중간에 시 낭송 시간, 힐링을 주제로 한 대화의 시간 등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인천구치소

### 의정부교도소 / 교도 김주용

####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개최

의정부교도소는 10월 19일 청사 2층 회의실에서 교정협의회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위촉된 신규 교정위원은 교화분과 3명, 불교분과 2명 등 총 5명이다. 의정부교도소 구지서 소장은 "오늘 위촉된 교정위원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참관 실시

여주교도소는 10월 23일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경찰학과 지도교수와 학생 등 49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관은 교수 및 학생들이 교정 홍보 영상 시청을 시청하고 보호장비 체험을 진행한 후 장애인 재활센터, 지게차 훈련장, 집중인성교육장 등을 참관하는 형식으로 이어졌다.

###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10월 1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현욱 강사를 초청하여 '장애가 아닌 사람으로'라는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 및 장애인 고용정책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참여한 직원들은 "장애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영월교도소

## NEWS

### 춘천교도소 / 교사 신창훈

#### 소자본 창업교육 실시

춘천교도소는 10월 15일부터 5일간 구내 취·창업 교육실에서 소자본 창업교육을 실시하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초빙강사 5명은 출소예정자 중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20명의 수용자들에게 매일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용자들은 교육강사들과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소감을 전하였고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 2018 수용자 국화 전시회 개최

원주교도소는 10월 22일부터 3일간 청사 앞마당 전시장에서 '2018년 수용자 국화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교정협의회 회장, 교정위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수용자가 원예직업훈련의 일환

으로 재배한 국화 610여 점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특수직(거북선), 중직, 분재국화 등의 작품이 선보여졌으며, 직원 음악동아리인 어울림의 공연행사도 실시되었다.

###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석

#### 홍남식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책 현장 방문

홍남식 서울지방교정청장은 10월 18일 강릉교도소 정책현장을 방문하였다. 홍남식 청장은 수용관리실태, 교정행정 주요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직원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직원 소통 및 화합 등을 강조하였다. 이어 강원북부교도소(속초) 신축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굿은 날씨에도 법무시설 확충을 위해 고생하는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대구지방교정청

###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허광명

#### 추계 문화행사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10월 16일 제73주년 교정의 날을 맞이하여 추계 문화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에 지친 소속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직원들은 행사를 통해 식사를 함께하며 격의 없이 소통의 시간을 가진 후 영화를 함께 관람하였다.

###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 행사 개최

대구교도소는 10월 15일 소 내 대강당에서 문화 나눔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 행사를 개최하였다. '찾아가는 영화관 서비스'는 CBS 기독교방송이 후원하고 기독교 NGO단체인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이 주최하는 문화 나눔 사업으로, 문화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영화를 상영하는 서비스다. 이날 행사에는 CBS시네마 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이 상영되었다.

### 부산구치소 / 교사 박창훈

#### 제4회 부산구치소 어린이 유도대회 개최

부산구치소는 10월 28일 교정의 날을 기념하여 소내 연무관에서 '제4회 부산구치소 어린이 유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친밀한 교정행정의 구

## NEWS

### 영월교도소 / 교사 손동규

#### 영월중학교·석정여자중학교 참관 실시

영월교도소는 10월 11일부터 이틀간 영월중학교, 석정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교사 및 학생들 42명은 교정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교정시설을 둘러보면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위 김관순

#### 안청중학교 진로체험 및 시설 참관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10월 2일 관내에 위치한 안청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및 시설 참관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홍보동영상을 시청한 후 민원실, 강당, 직업훈련장 등 시설을 참관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 부산교도소 / 교사 문수환

#### 칸타레 중창단 공연 실시

부산교도소는 10월 19일 칸타레 중창단을 초청해 수용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강당에서 교화공연을 개최하였다. 전문 성악가 및 아마추어 성악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칸타레 중창단은 보육원, 요양원 등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문화공연을 펼치고 있는 단체다. 이번 공연에서는 서울산 색소폰 앙상블과의 협연을 통해 고향의 봄 등 15곡을 수용자들에게 선보였다.

###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 청렴옴부즈만 회의 개최

포항교도소는 10월 4일 외부위원과 함께 청렴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하였다. 청렴옴부즈만 회의는 청렴 분야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부패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패 예방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 제1회 법무가족 행복나눔음악회 개최

진주교도소의 음악동호회 '선율여행'은 10월 17일 한국도지주택공사 본사 1층 대공연장에서 '제1회 법무가족 행복나눔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연에는 법사랑위원회 진주지역연합회, 창원지방검찰청

## 대구지방교정청

진주지청, 진주준법지원센터, 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 '등불' 등 각 기관 참가팀의 1부 공연과 초대 가수 김주아의 특별공연, 진주교도소 음악동호회 '선율여행'의 2부 공연이 진행되었다.

### 대구구치소 / 교사 광명재

**직원가족 초청 교정시설 참관 행사 실시**  
대구구치소는 10월 25일 행복한 직장문화 활성화를 위한 직원가족 초청 교정시설 참관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가족들은 법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교정공무원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였다. 또한 가족의 가치를 일깨우며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조진호

#### 수용자 전국기능경기 대회 입상 쾌거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수용자 2명이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엑스포' 등 6개 경기장에서 열린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각각 헤어디자이너 부분, 미장 부분에 참가한 수용자 2명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담당 훈련교사의 열성적인 지도 아래 훈련에 매진해 왔다.

### 안동교도소 / 교위 강병곤

#### 보라미 준법교실 및 참관 실시

안동교도소는 10월 5일 안동 경안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 및 참관을 실시하였다. 소를 방문한 안동 경안여자중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을 진행하였고 교정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보라미 준법교실 이후에는 소 내 참관을 실시하였다.

###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김기연

#### 직원탈의실 캐비닛 교체

김천소년교도소는 10월 11일 직원탈의실의 캐비닛을 교체하였다. 그동안 크기가 작고 낡아 사용하기에 불편했던 캐비닛을 더 넓은 수납공간을 갖춘 캐비닛으로 교체하여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켰다. 직원들은 캐비닛 교체로 출퇴근 시간이 즐거워졌으며 소장을 비롯, 복지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이우성

#### 주왕산 자생식물 나눔 행사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10월 11일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주왕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함께 '등근잎평의비름(꽃말: 토착, 친숙)' 자생식물 200개 화분을 탐방객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주왕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수용자들이 원에 직장장에서 한 해 동안 정성껏 가꾼 주왕산 자생식물을 화분에 옮겨 담아 주왕산 탐방객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울산구치소 / 교사 이지수

#### (주)한국동서발전 직원 대상 참관 실시

울산구치소는 10월 19일 (주)한국동서발전 본사 및 화력발전부 직원 21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참관을 마친 직원들은 "수용자 인권보호와 교정·교화에 매진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애로 등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번 경험이 청렴한 직장생활의 기반이 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진

#### 직원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경주교도소 직원들은 제73주년 교정의날을 맞이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다트 경기와 투호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경기를 다 마친 후에는 직원식당에서 조촐히 차려진 음식들을 먹으며 화합을 다짐하였다.

### 통영구치소 / 교위 조정훈

#### 찾아가는 무비 콘서트 개최

통영구치소는 10월 19일 '찾아가는 무비 콘서트'를 구치소 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콘서트는 한국문화예술회관이 주관하는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 소외지역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목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한 수용자는 "영화 관련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 밀양구치소 / 교사 이상협

#### 음주운전 자정결의대회 및 직원교육 실시

밀양구치소는 10월 16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수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음주운전 자정결의대회' 및 외부강사 초빙 직원교육을 실시하였다. 총무과장이 직원 대표로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을 낭독하였으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황준승 교수가 초빙되어 음주운전의 사례들과 위험성 등을 교육하였다.

###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욱

#### 찾아가는 무비 콘서트 개최

상주교도소는 10월 29일 교도소 내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무비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연은 수용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성순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수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영화 OST 및 친근한 클래식 연주곡 등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이 상영되었다.

## NEWS

## 대전지방교정청

###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조남욱

#### 종교차별 예방교육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10월 10일 2층 대회의실에서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최정화 원광대학교 종교학 연구교수는 전 세계의 종교적 차별 현황 등을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종교적 차별이 심한 나라로 분류되어 있어 국민 스스로가 종교 차별을 하지 않고 각자의 종교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 장경동 목사 초청 직장 교육 실시

대전교도소는 10월 4일 대전중문교회 장경동 담임 목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직장 교육을 실시하였다. 장경동 목사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직장 생활'이라는 주제로 직원들에게 뜻깊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교육을 마친 장경동 목사는 "직원들에게서 밝은 에너지가 느껴져서 좋았고 이러한 기운이 수용자에게 전달되어 수용자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 청주교도소 / 교사 김재덕

#### 비전스케치 교육 실시

청주교도소는 10월 11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비전스케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장인 정신으로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주제로 인문학 특강이 진행되었다. 또한 도판작업을 실시하여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 천안교도소 / 교도 김우겸

####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방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0월 1일 국내 유일의 외국인 전담교도소인 천안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

사들과 작업장 등 시설을 둘러봤다. 이어 자국민 수용자 면담, 외국인 수용자를 위한 한국문화알기 프로그램 참관, 방문기념 영문판 도서 기증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해리 해리스 대사는 "천안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미국인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위해 차별을 두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는 한국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 행복콘서트 공연 개최

청주여자교도소는 10월 5일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수용자 행복콘서트 공연을 진행하였다. 축제는 수용자들의 건전한 수용생활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방송댄스와 하모니카 공연 등 외부공연과 수용자 장기자랑 등의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이번 축제에 수용자들은 뜨거운 호응으로 답했다. 특히 이날 축제는 교정위원 및 참여 인사들이 어울려 의미를 더했다.

### 공주교도소 / 교위 이경민

#### 직원 기증물품 사랑나눔 실천

공주교도소는 10월 8일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을 공주시 명확장학회(희망사다리사업단)에 전달하였다. 기증된 물품은 명확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상설 알뜰매장을 통해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소외 계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 충주구치소 / 교위 조만택

####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충주구치소는 10월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행사는 행동강령책임관인 총무과장의 대표 결의문 낭독으로 시작되었다. 참석한 직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선서를 하며 청렴실천의지를 다졌다.

### 홍성교도소 / 교도 김영선

#### 보령 웅천중학교 참관 실시

홍성교도소는 10월 12일 보령 웅천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고 보라미 준법교실을 진행하였다. 웅천중학교 학생들에게 국가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은 물론 진로체험활동 등을 설명하며 교정행정에 대하여 홍보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웅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9월 20일 '2018년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수양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천안고용센터 등 유관기관 3곳과 3개 기업체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28명이 참가하여 16명의 수용자가 채용약정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유제영

#### 보라미 준법교실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10월 12일 해미중학교를 방문하여 보라미 준법교실 강연을 실시하였다. 강연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학생들의 준법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 수용자 이동안전교육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10월 16일 구내 운동장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이구 강사를 초빙하여 집중근로 및 운영지원 수용자 50명을 대상으로 수용자 이동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동안전교육센터 버스 안에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NEWS



부산구치소



진주교도소



밀양구치소



청주교도소



공주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 광주지방교정청

###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김윤규 광주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광주지방교정청은 10월 12일 광주교도소 정책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광주지방교정청 이경식 청장은 광주교도소의 업무현황과 기관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일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또한 "지방 교정청은 법질서 확립과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률을 낮추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 광주교도소 / 교사 이병석 광주동신여자중학교 개방시설 참관

광주교도소는 10월 11일 광주동신여자중학교 인솔 교사와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하는 참관 행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진로체험의 일환으로 보라미준법교실도 진행하였다. 개방작업장과 개방수용동을 둘러본 학생들은 교정공무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며 높은 흥미와 관심을 보였다.

### 전주교도소 / 교위 김도훈 수용자 교화공연 문화축제 행사 개최

전주교도소는 10월 18일 대강당에서 교화공연 문화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오성택)의 후원으로 실시된 것으로, 작업 수용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단 오픈무용(현대무용), 초청가수 공연, 각설이품바, 난타, 마술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한편 후원으로 제공된 백설기 떡(1,400인분)은 공연에 참석한 수용자 뿐 아니라, 전 수용자에게 제공되었다.



광주지방교정청

### 순천교도소 / 교사 최창래 '비전스케치 과정' 실시

순천교도소는 10월 2일 임성빈 대전시민대학 교수를 초빙하여 '비전스케치 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예술 체험활동을 통한 공감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여자가 직접 도자기를 빚는 시간도 진행되었다.

### 목포교도소 / 교도 박경웅 도자기 빚기 체험 실시

목포교도소는 10월 4일 바쁜 일상에도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아성찰의 시간을 갖기 위해 비전스케치 과정 '도자기 빚기' 체험을 실시하였다. 참석한 직원들은 '정인 정신으로 배우는 삶의 지혜' 특강을 통해 결정을 용납하지 않는 장인정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한 물레를 이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도자기를 빚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상 수상

군산교도소의 수용자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린 2018년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분야에서 우수상을 차지하였다. 이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수용자들은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수용자는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소장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지도해 주신 직업훈련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 제주교도소 / 교사 홍지호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실시

제주교도소는 10월 1일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100여 명의 수용자 가족이 참여하였으며, 수용자들이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고마움과 미안함을 가족에게 전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전주교도소

### 장흥교도소 / 교위 송판근 이동금연 클리닉 종료

장흥교도소는 10월 16일 장흥군 보건소의 협조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종료하였다. 이동금연클리닉은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다. 2주에 한번씩 보건소 직원이 출장을 와서 직원들에게 금연보조제 등을 지급하며 폐활량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등록된 직원 13명 중에 4명이 금연에 성공하는 쾌거를 올렸다.

### 해남교도소 / 교도 조기호 해남읍방법대 참관 실시

해남교도소는 10월 16일 해남군 해남읍방법대 10여 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관은 지역 사회에 교정행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방법대의 한 대원은 "교도소가 단순히 수용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교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용자를 교화한다는 것을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해남교도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교정행정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 정읍교도소 / 교사 안하옥 최강주 교정본부장 정책 현장방문 및 교정위원 간담회 실시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10월 18일 정읍교도소를 방문하여 개청 3주년을 맞이한 정읍교도소의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어 간담회 자리에서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이날 교정위원 간담회를 주재하여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힘쓰는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순천교도소

## NEWS

## 교정공제회

### 하반기 교정장학금 지급

교정장학금 제도와 모범교정공제회원 현장견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교정공제회가 올해 상반기 747명, 하반기 35명의 회원들에게 교정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교정공제회는 대학교 학사학위 과정에 입학했거나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상에 진학한 공제회원, 그리고 이들 회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위과정 구분 없이 1회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대학 또는 교육과정과 이와 유사한 대학에 입학했거나 공제회원 또는 회원 자녀가 장학금 수혜를 받고 다른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후 재학기간 중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회원 가입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회원만 신청할 수 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전문경력관 엄금식**

**정기적인 재능기부 실시**

성실한 교육훈련을 통해 수용자들의 교정 교화와 성공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하였다. 또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원 20여 명과 함께 이미용 봉사동호회를 만들어 매주 2회씩 직원들에게 헤어디자인 기술을 재능 기부하였다. 특히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미용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정공무원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서울



**청주교도소  
교위 김문성**

**수용자 고충 해결 및  
수용관리 안정화 기여**

보안과 고충상담 근무자로서 신입자 상담 및 수용자의 각종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들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였다. 미지정 수용동 근무 시에는 출역이 힘든 수용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수용자들과 수시로 상담을 실시하는 등 고충 해결을 위하여 만전을 기함으로써 수용 관리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대전



## 국군교도소

### 교도관 힐링캠프 실시

국군교도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교도관 힐링캠프를 진행했다. 교도관 힐링캠프는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 군 교정행정을 이끌어갈 교도관들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서예 시연회, 전문군사초빙강연, '행복나눔발전소' 자장면 위문, 그리고 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국군교도소 전 장병들은 함께 화합, 단결하며 군 교정행정의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대구구치소  
교위 황하기**

**효율적인 수용 관리 및 수용생활 지원**

결핵환자 검사 및 기록 유지, 지역보건소와의 긴밀한 업무연조를 결핵환자 관리에 기여하였다. 또한 수용동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여 활기찬 수용동 분위기를 만들고 수용자를 모범적으로 인도하여 수용자 기초생활질서 확립에 노력하였다. 또한 신입수용자에 대해 재판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수용자 권의 보호에도 힘썼다.

대구



**광주교도소  
교위 주성표**

**수용질서 확립 및 교정사고 예방 기여**

미결 수용동 근무자로 매사 원칙에 입각한 업무수행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수용질서 확립 및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하였다. 또한 평소 직원들과의 화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화기에애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다른 직원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광주



모범공무원입니다  
소개합니다

# 당신이 품은 '정의'는 어떤 빛으로 물들어 있나요?

월간 <교정> 11월호 교정스타그램에서는 '정의'와 관련하여 다채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교정공무원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일상 속에 정의의 모습을 새기는 이들의 모습들을 감상해 보세요.

11:11 100%

교정공무원이 곧 정의다!

11:11 100%

교사 윤여경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학생들에게 교정공무원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에 대해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11:11 100%

정의를 지키는 딸

11:11 100%

교위 박세호 광주교도소

정도를 지키는 둘째 딸의 뒷모습이 아름답습니다.

11:11 100%

정의를 향하다

11:11 100%

교도 김영선 홍성교도소

오늘도 우리는 정의의 표적지를 향해 갑니다!

11:11 100%

독수리 오형제

11:11 100%

교위 정신모 광주교도소

광주의 정의는 우리 독수리 오형제가 지킵니다!

11:11 100%

컴퓨터 수리를 통한 정의구현?

11:11 100%

교사 김남규 경북북부제1교도소

전산담당의 정의구현이라면 설명이 될까요? 고장 난 컴퓨터를 고쳐...그냥 바뀐...줄게요^^;

11:11 100%

정의를 가르치다

11:11 100%

교도 김정태 김천소년교도소

인근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내 참관 모습입니다. 중학생들에게 교정장비 체험을 지도하며 준법정신을 길러주기 위해 애쓰고 있는 CRPT 입니다!

### 교정 스타그램에 참여해주세요.

교정 스타그램은 <교정>을 아끼는 교정공무원과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매 호 정해진 주제에 어울리는 사진과 짧은 문구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지면을 통해 소개해드리며 문화상품권(1만 원 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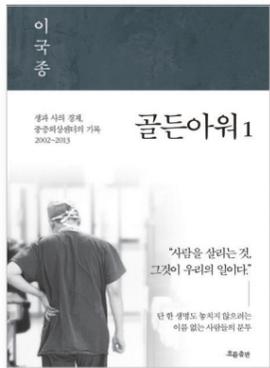
'12월의 테마 컬러는 'GOLD', 주제는 '성공'입니다.

'성공'이라는 주제와 어울리는 사진(1MB 이상)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신청 : correct2015@naver.com (문의 : 02-2110-3461) / 소속, 직급, 이름, 휴대폰 번호 必

## 우리에게 '정의'를 일깨워주는 책들

'정의'가 메마른 요즘, 이 절실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직접 쓴 '올바름'에 대한 이야기.



### 골든아워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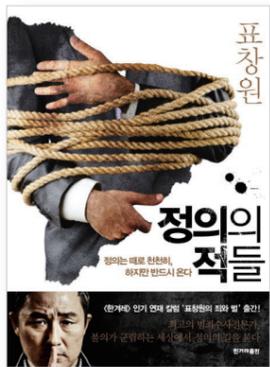
이국종 지음 / 흐름출판

'막을 수 있었던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도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하는가?' 열악한 정부의 지원 속에서 응급환자를 구출하기 위해 헬기를 타고 출동하여 대중에게 귀감이 된 외과의사 이국종 교수. 그가 중증 외상 의료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17년 동안 펼쳤던 노력을 되짚어 보는 책이다. 또한 삶과 죽음을 가르치는 사선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환자와 저자, 그리고 그 동료들의 치열한 서사이기도 하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두고 옳고 그름을 구별해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다.

### 판사유감

문유석 지음 / 21세기북스

판사 문유석이 법관 계서판과 언론 등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국민과 법정 가운데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써 온 글들을 엮은 책이다. 저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재판을 통해 떠올린 법과 사람 그리고 정의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으며, 법원이라는 조직을 통해 깨달은 한국 사회의 단면 역시 그려져 있다. 정말 법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한가. 국민과 권력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 지금,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담은 그의 따뜻한 시선이 냉소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으로 다가온다.



### 정의의 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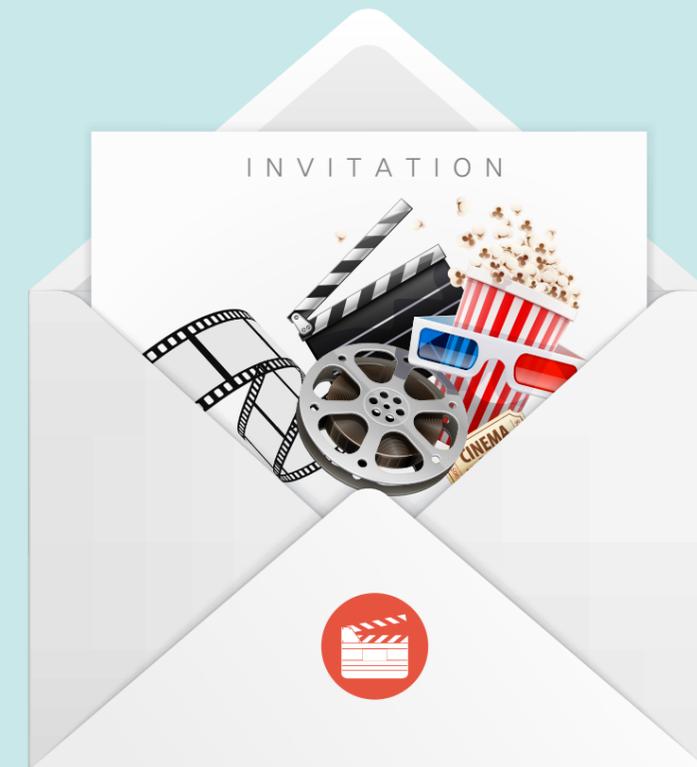
표창원 지음 / 한겨레출판사

표창원 국회의원이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던 시절 내놓은 책이다. '정의'의 프레임으로 살펴본 우리 사회 범죄와 범죄자들을 다룬 이 책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논란과 화제의 범죄 사건, 그리고 이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과정을 '정의'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과연 이 사건들이 '정의'란 프레임 속에서 진실이 규명되었는지, 처벌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부합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냉철하게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도덕이 바람직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한다.

# 귀하를 오늘 영화 같은 하루 속으로 초대합니다.

판에 박힌 일상, 반복되는 스트레스. 딱 하루라도 문화를 즐기며 힐링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당신의 힐링을 도와드립니다.

공연관람, 간식 일체 제공 / 3인 이내의 동료직원과 함께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 접수 방법

- ① 근무지, 소속,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 correct2015@naver.com로 보낸다.
- ② 특별한 하루를 함께하고픈 동료가 있다면 함께 적는다.
- ③ 당첨 전화가 오면 흥겹게 받는다.

특별한 날 오래 기억할 수 있게 기념사진과 즐거운 이야기를 <교정>에 실어드립니다.

행복한 관광 즐거운 일차리



# 2018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11.20.(화)~21.(수) / 2일간 **aT**Center 2 전시장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공동주관 |  한국관광공사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KATA 한국여행업협회  KAAPA 한국관광진흥원시설협회

 KCA Korea Casino Association 한국카지노관광협회  (사)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MICE협회  kapco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KOTSA

| 후원 |  한국관광산업협회  교육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GKL사회공헌재단  IBK기업은행

